

정책보고서 2020-9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943-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채수미

윤강재·김성아·최지희·이응준



**【연구책임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응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20. 9. 28.)한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9</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b>제2장 국가별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b>	<b>19</b>
제1절 세계보건기구 .....	21
제2절 독일 .....	26
제3절 미국 .....	30
제4절 중국 .....	36
제5절 일본 .....	42
제6절 스웨덴 .....	48
<b>제3장 우리나라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b>	<b>51</b>
제1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	53
제2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련 쟁점 .....	66
<b>제4장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욕구 조사 .....</b>	<b>85</b>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87
제2절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	92
제3절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	98
제4절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109



<b>제5장 결론</b>	<b>131</b>
제1절 건강 관리 지원 방안	133
제2절 복지 지원 개선 방안	139
제3절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145
 <b>참고문헌</b>	 <b>155</b>
 <b>부록</b>	 <b>163</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	7
〈표 2-1〉 자가격리 시 필요 사회서비스 요구도 평가 .....	34
〈표 3-1〉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	63
〈표 4-1〉 주요 조사 내용 .....	87
〈표 4-2〉 조사 참여 동의자 현황 .....	89
〈표 4-3〉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90
〈표 4-4〉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경험 .....	94
〈표 4-5〉 자가격리 종료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	95
〈표 4-6〉 자가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 .....	96
〈표 4-7〉 자가격리 중 불건강한 식사(영양 불균형 또는 불규칙) 경험 .....	97
〈표 4-8〉 자가격리 중 운동량 감소 경험 .....	98
〈표 4-9〉 가구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	99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지원 수급 현황 .....	100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지원 충분성 인식 .....	101
〈표 4-12〉 자가격리 중 자영업자 영업체 운영 .....	102
〈표 4-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식료품 지원 경험 및 인식 .....	103
〈표 4-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위생키트 지원 경험 및 인식 .....	104
〈표 4-1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가격리 기간 중 식사 방법 .....	105
〈표 4-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 대처 방법 .....	106
〈표 4-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현황 .....	107
〈표 4-18〉 자가격리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돌봄 방식 .....	108
〈표 4-19〉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여부 .....	108
〈표 4-20〉 자가격리 기간 중 본인 돌봄 방식 .....	109
〈표 4-21〉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 .....	110
〈표 4-22〉 자가격리 생활수칙 인지 경로 .....	111
〈표 4-23〉 자가격리자 전담 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	112
〈표 4-24〉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통한 공무원 수 .....	113
〈표 4-25〉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응답 비율 .....	114
〈표 4-26〉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 중 불쾌감 경험 .....	115
〈표 4-27〉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117
〈표 4-28〉 주요 자가격리 준수사항 실천율 .....	119

---

〈표 4-2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 활용의 불편함 .....	121
〈표 4-30〉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격리 기간 .....	122
〈표 4-31〉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비동거 가족 또는 지인의 방문 금지 .....	123
〈표 4-32〉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1일 2회 입력 신고 .....	124
〈표 4-33〉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 .....	125
〈표 4-34〉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 내에서 동거 가족과의 격리 노력 .....	126
〈표 4-35〉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 .....	127
〈표 4-36〉 자가격리 중의 코로나19 검사 시점 .....	128
〈표 4-37〉 단독 또는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경험한 경우 .....	129
〈표 4-38〉 동반 자가격리 경험에 대한 의견 .....	130
〈표 5-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	150



[그림 1-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	11
[그림 1-2] 국내 자가격리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	12
[그림 1-3] 국내접촉 및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	13
[그림 4-1] 자가격리 중 기저질환 관리 현황 .....	93
[그림 4-2] 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 제공 시점 .....	96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절차 전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가 협업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중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8월, 12월 세 차례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자가격리자 관리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뿐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관리, 생활 지원 등 보건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를 조사해,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연구 결과

#### 가.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 (기저질환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는 시급성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병원진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가격리자의 기저질환 관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2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조사에 응답한 자가격리 경험자 중 12%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기저질환자였고, 이들 중 42.9%가 자가격리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지 못했음.
- (정신건강 관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충격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함.
  - 본 조사 결과,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3.9%였고, 이러한 경험은 성, 연령, 경제활동 상태, 자가격리 경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 응답자의 21.5%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관리)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에 변화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했으며, 89.5%가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감소했음.

### 나.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 (소득 지원)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약 50% 정도만 지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보았음. 자가격리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로,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전히 소득원이 상실되었고 대처 방안도 부재하여 경제적 신(新)취약집단이 될 수 있음.
- (생활 지원)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자가격리자는 식사 해결, 외출 등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에 대해 읍·면지역 응답자의 점수가 동

지역 응답자의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식료품의 종류와 질의 지역 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자가격리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돌봄 지원) 조사 결과,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2%였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였음.

-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포함된 비율로 본인 돌봄 수요자의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다.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제공)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는 크게 ‘본인 인지’와 ‘외부로부터의 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72.0%였으며, 국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인지 후, 보건소의 공식적인 격리 통지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인지 시점부터 격리 통지 시점까지 기간 중에 대면활동이 있었다는 응답은 56.4%로 조사되어 방역 사각지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감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11.0%였는데, 신체적·정신적 압박 수준이 높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상호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의 실천) 자가격리 기간 중 비동거 외부인과의 대면접촉 금지 89.5%의 응답자들이 잘 준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외출 경험은 19명에게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 등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순수한 ‘이탈’은 6

#### 4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건이었음.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23.4%였음.

□ (기타) 조사 응답자 중 단독 자가격리자 비율은 65.1%였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된 비율은 34.9%였음.

○ 본 조사 결과에 국한되기는 하나,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 3. 결론 및 시사점

#### 가. 건강 관리 지원 방안

□ 기저질환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 보완

○ 병원진료, 치료 요구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을 보완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해 자가격리 기간 중 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검토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대리 처방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지침 수행을 독려해, 자가격리 중 병원진료,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상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 완화

○ 자가격리자 대상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야간 및 휴일 대응 체계 강화

○ 야간, 휴일 중 전담 공무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야간, 휴일 중 자가격리자의 민원은 긴급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제한해 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소진 예방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전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자가격리자 특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시기, 내용, 전달해야 하는 정보 등 서비스 체계화

□ 생활습관 관리로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유지 도모

- 자가격리 중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생활습관 유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나. 복지 지원 개선 방안

□ 표적화된 소득 지원

- OECD(2020. 6., p. 8)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의 현금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 대해 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표적화된 현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맞춤형 생활 지원

- 지원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실제 지원받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 등 실효성을 고려하면 지역,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리된 식품이나 식재료, 생활용품 등의 배달이 용이한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전자이용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제공해야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 등 제한된 접촉 범위를 유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휴직 등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시 엄격한 관리하에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함.

**다.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리 개선의 방향성

- 자가격리제도의 운영 개선은 ① 신속한 위기 상황 종식에 기여, ②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③ 자유 제한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례적 타당성, ④ 자세하고 명료한 운영을 통한 순응도 제고의 방향성 필요
- 자가격리자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에 연동되며, 확진자 규모는 전담 공무원 업무량과 신체적·정신적 소진과 직결되므로 ‘자가격리제도 운영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행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여

□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 감염병 유행을 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②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로 구분하여 자가격리제도의 목표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기준은 중간 단계 이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거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수가 지역사회 확진자 수보다 많은 상황으로 설정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설정

〈요약표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유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산발적 감염</li> <li>• 해외유입 확진지역사회 확진</li> <li>• 중간 이하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유행</li> <li>•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li> </ul>
자가격리제도 운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역량 축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신속 발굴</li> <li>• 자가격리 채널 확장</li> </ul>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대상자와 전담 공무원 1:1 대응</li> <li>•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안정화</li> <li>•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li> <li>•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 세분화 및 안전보호앱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소방, 민간행정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역량 활용</li> <li>• 자가격리 응급환자 의뢰이송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가동</li> </ul>

#### □ 감염병 노출 인지 시점과 자가격리 개시 시점 사이의 시차 최소화

- 국내접촉자의 경우 감염병 노출과 자가격리 사이의 시차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 정보 수집·교류 체계 구축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확진자 접촉자 신고 채널을 확장

#### □ 전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협업

- 전담 공무원의 소통 역량은 강화하되, 업무상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지역사회 행정조직 활용 등으로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대응
-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상황 파악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소통의 규칙성을 최대한 준수

#### □ 자가격리자 일상 지원 및 ‘집단’ 자가격리제도 운영 검토

- 단독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 아동 등), 밀집 환경(예: 고시원, 근로자 집단 거주지 등) 거주자, 해외입국 후 국내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 소규모 집단 단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그 기준과 생활수칙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 8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 장기적으로 감염병 특성에 따른 자가격리제도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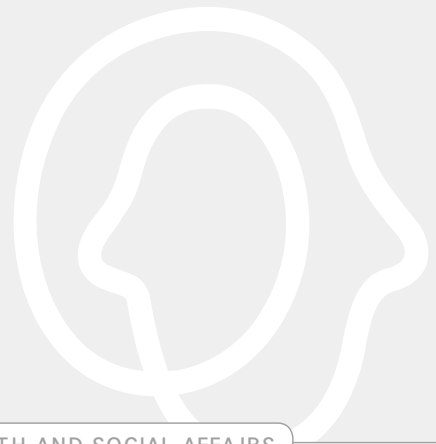
- 현재 자가격리제도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감염질환에 특수화되어 설계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 질환을 정비하고, 감염병 특성에 따른 격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향후 다양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 필요

\*주요 용어: 자가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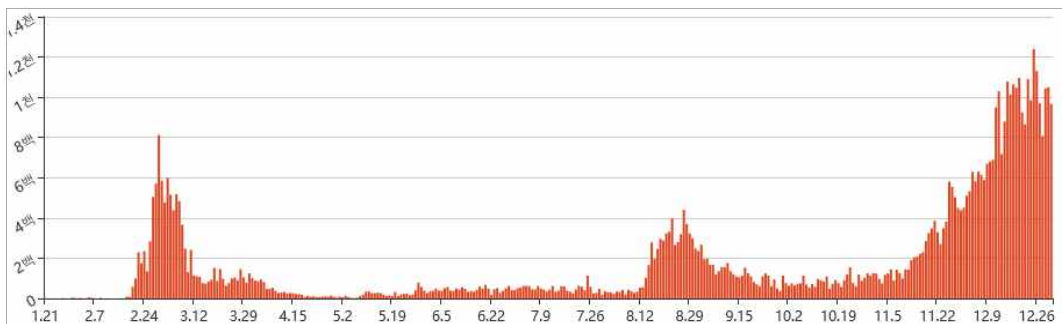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1일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1년 가까이 유행을 지속하고 있음.
- 국내 코로나19 유행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진자 60,734명, 사망자 900명으로 집계됨.
- 전 세계 확진자가 약 8,300만 명, 사망자가 약 1,800만 명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Coronaboard 홈페이지, 2020).
-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대되어 효과적인 보건 및 방역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

[그림 1-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Coronaboard 홈페이지.(2020).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에서 2020. 12. 31. 인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절차 전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가 협업하고 있음.

- 자가격리란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도록 하여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격리 조치를 말함.
- 자가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전담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과 17개 시·도 지역담당관을 운영 중에 있고, 매일 시·군·구별 자가격리제도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유관 기관과 지역 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이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2월 9일부터 업무를 조정해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전담함.
  -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자가격리자의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0. 11. 17.).
- 질병관리청에서는 자가격리 관련 대응 지침 관리 및 역학조사 연계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행안부와 협업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중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8월, 12월 세 차례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20.12.31.).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자가격리자 수는 총 1,151,154명이며, 격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대상자는 72,860명임.

[그림 1-2] 국내 자가격리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0.12.31.).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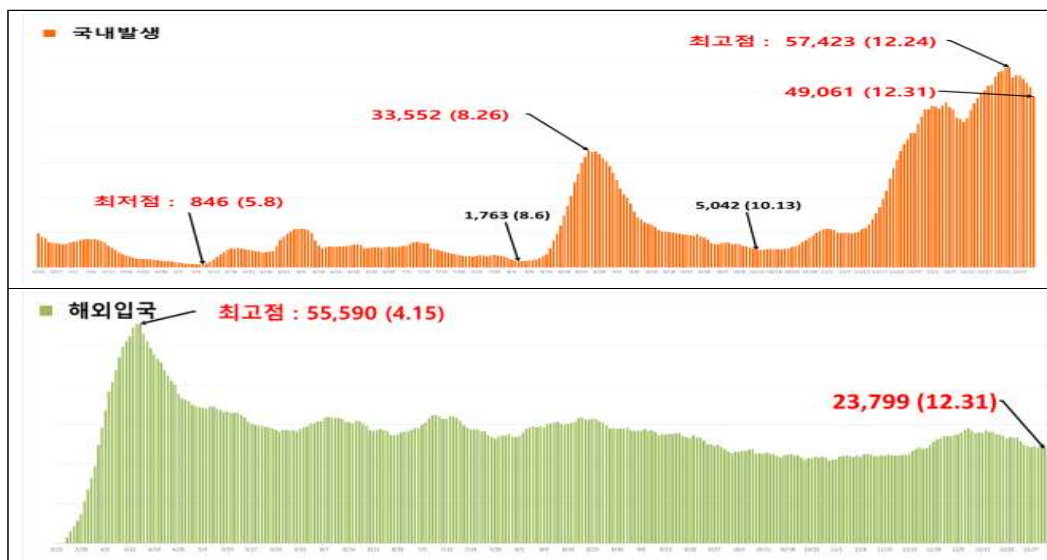
○ 해외입국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전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자가격리자 중 해외입국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3차 유행 시에는 국내접촉자의 자가격리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수 자가격리 방침을 시행한 이후 4월 14일에 자가격리자가 59,918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후 국내 2차 유행 시기인 8월에 63,975명, 3차 유행 시기인 12월에 84,056명으로 최고점을 나타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 72,860명 중 해외입국자가 23,799명(32.7%), 국내접촉자가 49,061명(67.3%)으로 국내접촉자의 비중이 높음.

○ 자가격리자 중 국내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국내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대구, 경북 상황이 호전된 5월 8일에는 846명으로 최저점이었고, 8월에는 이태원 주점 사태로 일시 증가하였으며, 8.15 집회 이후인 8월 26일에는 33,552명, 겨울철 불특정 집단에서 감염이 확산된 12월에 57,42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함.

[그림 1-3] 국내접촉 및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 발생 추이(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0.12.31.).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 보고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는 2020년 11월 15일 기준 1,408명으로, 전체 누적 자가격리자 수 대비 0.17%에 해당됨(행정안전부, 2020. 11. 17.).
  - 일평균 5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7%)과 20대(20%)가 많았음.
  - 적발 경로는 불시 방문점검 433명(31%), 주민신고 372명(26%), 자가격리 앱 358명(25%), 유선점검 206명(15%) 순으로 나타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국내에서 벌어진 2차 전파 중 60%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발표함(김잔디, 2020. 4. 10.).
- 또한 자가격리 중 기저질환자의 응급 처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함(이태운, 2020. 7. 9.; 오세진, 2020. 8. 24.).
- 자가격리자 관리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뿐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관리, 생활 지원 등 보건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자가격리제도 운영 중 격리 기간, 이송 방법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잦은 민원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야 함.
- 자가격리 중 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대상자들에 대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자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측면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자가격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를 조사해,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 복지, 운영 관리 등의 측면에서 자가격리자의 욕구를 파악함.
- 자가격리 전담 부서 및 보건부서 담당자 등 사업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자가격리제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 조사
  -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 파악
    - 기저질환자의 질병 관리
    -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행태
    -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관리
  - 복지 지원 관련 욕구 파악
    - 생활지원비 지원
    - 경제적 피해 및 부담
    - 자녀 돌봄, 가족 간병
    - 자가격리 기간 중 물품 지원 등
  -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리 측면 실태 파악
    - 규제, 법 개선이 필요한 측면
    - 정보 제공, 소통
    - 자가격리 준수(가족과의 접촉 관리, 격리 기간 중 생활) 등

-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및 자가격리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가격리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 제시
  - 주요 국가의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와 모범 사례 검토
  -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보완 방향 제시

## 2. 연구 방법

- 국외 코로나19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검토
  - 세계보건기구,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운영 지침 검토 및 관리 현황 조사
- 자가격리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 면담 조사
    - 목적
      - 자가격리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을 위한 사전 인터뷰
      -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의 경험 조사 및 의견 수렴
    - 대상자 유형
      - 자가격리 경험자
      - 아동, 고령자 등 스스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가격리자의 보호자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가족
    - 면담 조사 규모
      - 2개 지역에 대해 대상자 유형별로 총 11명 인터뷰
      -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인터뷰 참여 동의자 섭외

○ 자가격리 경험자 설문조사

- 목적
  - 자가격리 실태조사
- 대상자 유형
  - 모집단을 알 수 없으므로 성, 연령, 지역 등 랜덤추출 불가능
  - 19세 이상 성인, 조사가 가능할 정도의 소통이 가능한 대상자
- 설문조사 규모
  - 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가격리 경험자 410명
  -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근거해, 전국의 전담 공무원 및 보건소에서 조사 참여 동의자 섭외
- 조사 방법
  - 전문 조사 기관을 활용한 웹조사 시행

□ 지자체 자가격리자 전담 부서 담당자 간담회

-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및 규정 관련 제한점 논의
- 지자체 운영 현황 파악

□ 지자체 모니터링 요원 및 보건소 담당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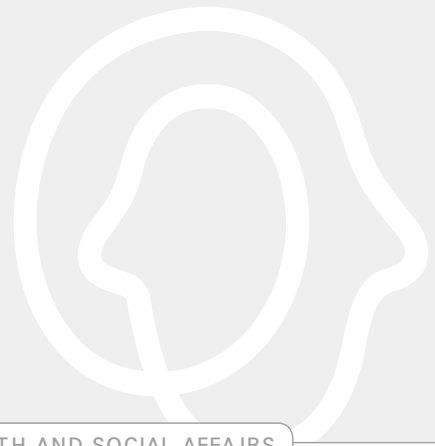
-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자가격리자 요구 파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국가별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제1절 세계보건기구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절 중국

제5절 일본

제6절 스웨덴



## 제2장 국가별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 제1절 세계보건기구

#### 1. 검토 배경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5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조직으로서, 국제보건에 대한 지휘 및 조정자 기능을 함(WHO 홈페이지, 2020a). 특히 감염병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회원국이 대유행에 대비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WHO의 감염병 경보 단계는 유행 위험 수준에 따라 총 6단계로 구성됨.
  - 첫 번째 단계는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동물 간 감염)의 인간 감염이 보고되지 않은 단계,
  - 두 번째 단계는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이 보고된 단계,
  - 세 번째 단계는 동물 또는 수인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소규모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단계(단,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기에선 사람 간 감염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
  - 네 번째 단계는 동물 또는 수인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단계,
  - 다섯 번째 단계는 동일 바이러스가 단일 지역권(WHO region)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유지하는 단계,
  - 여섯 번째 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단계를 이룸(WHO 홈페이지, 2020b).
- WHO에서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대유행

행(6단계)을 공식 선언했음. 이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 발생이 보고된 이후로 114개국에서 12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내려진 결정으로(조계완, 2020. 3. 12.), 확산세가 만연했을 때 내려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음(전희윤, 2020. 3. 12.; 이준기, 2020. 3. 12.; 임은진, 2020. 3. 12.).

□ 그러나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회원국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술 가이드스, 대응 전략과 계획, 관련 연구 및 미디어 보도,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공개 발표하고 있음(WHO 홈페이지, 2020c).

□ 일부 정치적 공방도 있었으나 국제사회를 위한 표준 권고를 발표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가 이를 참고해 따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WHO의 (자가)격리 지침을 살펴봄.

○ 자가 및 비의료환경에서의 격리를 다룬 가이드라인과 COVID-19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임시 가이드스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함.

## 2. 자가격리제도 운영

### 가. 대상자 정의

□ WHO에서는 COVID-19에 확실하게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위험 노출 이후 14일간 지정된 시설 또는 가정 내 격리를 권고하고 있음(WHO, 2020. 8. 19., p. 2).

○ 이때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란 현재 증상은 없으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고(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WHO, 2020. 8. 19., p. 1).

□ WHO에서 정의하는 격리 대상 접촉자는 COVID-19 확진 또는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14일 후까지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를 일

컬음(WHO, 2020. 8. 19., p. 2).

- 1m 이내 또는 15분 이상 대면접촉
- 직접적인 신체 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COVID-19 확진 또는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를 관리
- 지역위험평가(역학조사)로 파악된 경우

국내 지침에서는 접촉자를 접촉 상황(가정·지역사회, 장기생활시설, 의료환경, 교통수단 등)에 따라 세분화해 정의하고 있음. 이 중 가정·지역사회 접촉자 정의가 WHO의 격리 대상 접촉자 정의와 유사함.

## 나. 격리 이행

### □ 격리 공간 내 기본 생활

- 자가격리 시 격리 대상자는 통풍이 잘되는 1인실을 사용해야 하며, 1인실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가구원과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WHO, 2020. 8. 19., p. 2).
  - 공간 및 식기를 공유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하며, 공유가 불가피하다면 공유 공간(부엌, 화장실 등)은 환기가 잘되어야 함(WHO, 2020. 8. 19., p. 2).
  - 공간 및 식기 공유 시 접촉면, 손잡이, 사용 기구 등은 비누와 물을 이용해 청소해야 함(WHO, n.d., p. 3).

국내 지침에서는 가족 및 동거인과 자가격리 대상자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거리 기준은 두지 않음(단,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간격은 2m(최소 1m)임).

#### □ 환기

- (안전이 확인되면)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함. 기계를 이용해 환기할 때에는 실외 공기 비율을 높여 환기를 실시함(WHO, 2020. 8. 19., p. 2).
  - 1인실이 아니라면 공기 순환을 위해 선풍기(팬)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 함.
  - 선풍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침방울 또는 에어로졸 확산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고, 선풍기 바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함.

국내 지침에서는 자주 환기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환기 및 선풍기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음.

#### □ 증상 모니터링

- 하루에 두 차례 체온을 측정하며, 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근육통, 독감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역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함(WHO, n.d., p. 5).

국내 지침에서도 하루 두 차례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며, 이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유선으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WHO의 권고보다 엄격한 증상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음.

#### □ 위생 관리 및 폐기물 처리

- 기본적인 위생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 규약 등 적절한 감염 통제가 이뤄져야 함(WHO, 2020. 8. 19., p. 2).
  - 사용한 마스크나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 폐기 처리함(WHO, n.d., p. 6).

국내 지침에서는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방식도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가격리자 대상 전용용기 및 소독약품을 제공함.

#### □ 의료서비스 및 심리적 지원

- **격리 대상자가 의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WHO, 2020. 8. 19., p. 3).
  - 고위험군인 노인(또는 복합 질환을 앓는 노인)은 의료서비스 및 장비(의료 마스크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어린이를 포함한 격리 대상자는 격리 공간 외에 있는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가능한 인터넷이나 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WHO, 2020. 8. 19., p. 3).

WHO에서는 격리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지침에서는 시급성(의료 필요)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담당자와 동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

#### □ 타인의 방문

- 방문자를 최소화하며, 어떤 방문자도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WHO, n.d., p. 4).

### 다. 아동의 격리

-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살핌하에 격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WHO, 2020. 8. 19., p. 3).
  -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COVID-19 위험이 낮은 성인 가족 또는 기타 보호자의 보살핌하에 가정에서 격리되어야 함.
  - 가정 내 격리(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요구와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고려해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격리되고 돌봄을 받아야 함. 격리 기간 동안 보호자 및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이 매일 방문하거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성인이 접촉자이고 아동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 성인은 아동과 분리돼 격리되어야 할 수 있음. 이때 아동은 다른 비접촉 성인 가구원 또는 보호자의 보살핌하에 있어야 함(WHO, 2020. 8. 19., p. 4).

## 라. 격리 이행 시 국가(보건 당국)의 지원·역할

- 보건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 기간 동안 적절한 식품과 식수를 제공해야 함.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격리 장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격리 대상자와 현 상황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함(WHO, 2020. 8. 19., p. 2).
- 보건 측면에서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와 건강 모니터링이 요구됨(WHO, 2020. 8. 19., p. 2).

## 마. 격리 해제

- COVID-19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후에 격리 해제함(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음.)(WHO, 2020. 8. 19., p. 5).

# 제2절 독일

## 1. 검토 배경

- 독일은 2020년 10월 7일 기준 306,0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이후 총 9,562명이 발생하여, 사망률은 3.1%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독일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사람의 사망률은 다른 유럽 국가인 프랑스(확진자: 608,537명, 사망자: 32,134명, 사망률: 5%), 이

탈리아(확진자: 330,263명, 사망자: 36,030명, 사망률: 11%), 영국(확진자: 530,117명, 사망자: 42,445명, 사망률: 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WHO 홈페이지, 2020d).

□ 독일의 병상 및 의료 인력의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제공하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자료를 살펴 보면, 2017년 기준 독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8개, 프랑스의 병상 수는 5.98개, 이탈리아의 병상 수는 3.18개, 영국의 병상 수는 2.54개임.

○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각각 4.25명과 13.13명, 프랑스 3.37명과 10.48명, 이탈리아 3.99명과 6.71명, 영국 2.81명과 7.83명임(OECD 홈페이지, 2020a; OECD 홈페이지, 2020b).

□ 독일은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함.

○ 전체 자가격리자 수에 대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지만, 몇몇 도시에서는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의 졸링겐(Solingen) 지역에서는 10월 9일까지 총 6,195명이 자가격리를 진행하였으며 5,084명이 격리에서 해제됨(독일 Solingen 지역 홈페이지, 2020).

□ 상대적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자원에 더불어, 발병 초기부터 대량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자가격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수한 방역체계를 갖춘 나라로 손꼽힘.

○ CNN에서는 독일이 강력한 검사추적·격리 체제를 갖춘 덕분에 봉쇄 완화 조치를 실시하면서도 상황 통제가 가능한 나라라고 언급함(Sepkowitz, 2020. 3. 25.).

## 2.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 가. 자가격리 대상자

- 독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를 실시함 (infektionsschutz 홈페이지, 2020a).
  - 기침, 열,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 RKI)에서 제시한 위험 지역에 체류했다가 돌아온 경우
  - 확진자와 15분 이상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 감염자의 기관지 분비물을 접촉한 경우
  - 파티장, 노래방, 운동하는 곳 등 높은 농도의 에어로졸이 퍼져 있는 장소에 머물렀던 경우
  - 비행기에서 확진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경우

### 나.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

- 독일은 자가격리 시 아래와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함(infektionsschutz 홈페이지, 2020b).
  - 가능한 한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시간 격차를 두고 공동생활 공간을 활용함.
  -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할 때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함.
  - 실내를 규칙적으로 환기함.
  - 집 안 물품을 같이 사용하지 않음.
  - 물건 표면 등 접촉이 있었던 곳은 규칙적으로 소독함.

- 손으로 눈, 코, 입과 같은 얼굴 부위를 만지지 않음.
- 기침, 재채기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며 팔과 일회용 화장지를 사용함.
- 자가격리 대상자가 사용한 물품들은 천으로 감거나 따로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함.
- 하루에 두 번 체온을 측정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담당 보건부서에 알림.
- 증상이 있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일기를 작성함.

#### 다. 자가격리 해제 기준

- 독일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격리 14일 이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격리 해제 조치함(infektionsschutz 홈페이지, 2020c).
-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사람들 중에서 **48시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담당 보건소 의사의 판단하에 빠르면 10일 후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함.**

#### 라. 코로나19 관리 앱 및 격리 위반에 대한 규제

- 독일 정부에서는 ‘*Corona-Warn-App*’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bussgeldkatalog 홈페이지, 2020a), 이는 위치확인시스템(GPS)을 바탕으로 격리를 위반했는지 판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
-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여 감염 위험성을 파악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권고 사항**임.
-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보건소에서 규칙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며 경찰이 자택에 방문하여 격리 중인지 확인할 수 있음(bussgeldkatalog 홈페이지, 2020b).

- 만약 격리를 위반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주마다 다름.
- 베를린주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에 500~10000유로가 벌금으로 부과됨 (bussgeldkatalog 홈페이지, 2020a).

## 제3절 미국

### 1. 검토 배경

- 미국은 현재(2020년 10월 28일 기준) COVID-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발생률은 인구 100만 명당 27,305명으로 높은 반면 완치율은 약 65% 수준으로 전 세계 216개국 중 하위 43등의 완치율을 보임(완치율 통계가 산출되지 않는 6개국 제외)(Coronaboard 홈페이지, 2020).
- 미국 내 COVID-19 확산이 지속·심화되는 이유로는 현재의 세계적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백신·치료제 확보가 더 효과적이며, 봉쇄 전략보다는 경제 재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정부 방침(손진석, 정시행, 2020. 10. 27.),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홍창기, 2020. 10. 28.).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자의 격리(quarantine)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에 대한 격리(isola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COVID-19 증상이 있는 자, 증상은 없으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자 모두를 자가격리가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CDC 홈페이지, 2020a; CDC 홈페이지, 2020b).
- 이에 본 절에서는 CD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격리 전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격리 방식 안에서도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

## 2. 격리제도 운영

### 가. 대상자 정의

- COVID-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people who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someone who has COVID-19)를 격리(quarantine)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지난 3개월 이내에 COVID-19 확진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밀접접촉자란 1) COVID-19 확진자와 6피트(feet)(약 1.8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있었거나, 2) 확진자를 자택 내에서 간병했거나, 3) 확진자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거나, 4) 확진자와 식기를 공용했거나, 5) 확진자의 침방울, 기침, 콧물 등에 노출된 자를 이룸(CDC 홈페이지, 2020b).

### 나. 격리 이행

- 격리 공간 내 기본 생활(CDC 홈페이지, 2020b; CDC 홈페이지, 2020c)
  -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함.
    - 열(38℃), 기침, 호흡곤란 및 기타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가능한 한 다른 가구원(특히, COVID-19 고위험군)과 거리를 둔 채 생활해야 함.
  - 격리 공간 내·외부에 관계없이 주변에 타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호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스크 사용을 자제함.
- 간병인의 격리 및 기본 생활(CDC 홈페이지, 2020c)
  - *미국에서는 확진자의 재택 요양 및 간병이 이뤄지고 있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간병인을 포괄하는 종합 자가격리 수칙을 발표함.*
    - 간병인은 확진자를 간호하는 동안에도 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간호가 종료된 후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함.

- 간병인 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함.
    - 간호가 종료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CDC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자가평가 도구(CDC 홈페이지, 2020d)를 활용해 필요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
  -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을 피해야 함.
    - 확진자가 가능한 한 본인의 방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확진자 스스로 식사하거나, 간병인이 식사를 돕는 경우 모두 포함됨.), 확진자가 만진 식기류와 생활용품, 의류 등은 장갑을 착용한 채 만지고 비누 또는 뜨거운 물로 세척함.
    - 물론, 식기류와 생활용품은 공용을 금함.
  - 확진자의 혈액, 체액, 배설물 등을 만져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확진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확진자 간호 시 간병인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
  - 확진자가 독립된 방과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필요할 때 확진자 주변 공간을 청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 스스로 격리 공간을 청소·소독하도록 함.
    - 확진자와 화장실을 공용하는 경우 확진자가 사용한 때마다 소독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능한 한 장시간 기다렸다가 청소한 후에 사용함.
  - 확진자와의 공용 공간은 창문을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킴.
- 증상 모니터링(CDC 홈페이지, 2020b; CDC 홈페이지, 2020e)
- 자가격리자 대상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COVID-19 증상에 대한 일반적 모니터링 방식을 공통으로 적용함.
    - 열(38℃), 기침, 호흡곤란 등 COVID-19 관련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호흡곤란, 흉통, 어지럼증, 청색증 등 응급상황 시 911에 연락하거나 지역 응급시설에 가도록 권고함.

□ 의료서비스 및 심리적 지원(CDC 홈페이지, 2020f)

-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 알코올 및 물질 남용, 학대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경우 911에 연락하도록 권고하며,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재난 스트레스, 자살 예방, 가정 폭력, 아동 폭력, 성폭력, 노인 복지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 보호자 및 간병인 확진 시 대응(CDC 홈페이지, 2020g)**

- 미국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확진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합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고, 아동 중에서도 확진된 보호자와의 분리 여부에 따라 지침의 내용이 달라짐.

- (청소년, older children) 부모 또는 보호자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isolation)가 끝날 때까지 물리적인 접촉을 금함.

- 이때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교류를 제한하려면 아동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나이여야 함.

- (아동, younger children) 아동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제공자의 지시를 따라야 함.

- 부모 또는 간병인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자가 자택 밖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아동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임시보호자는 COVID-19로 인한 중증질환의 고위험군이어서는 안 되며, 아동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이후 14일간 그들의 격리를 지원해야 함.

- 확진받은 부모 또는 간병인과 함께 집에 머무는 아동의 경우, 기본적인 방역(자주 손씻기, 비누와 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소독제로 소독, 일상용품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feet)(약 1.8m) 거리 유지), 환기,

증상 관찰(하루 두 차례 체온 측정, 열·기침·호흡곤란 등 관련 증상 여부 파악) 및 후속 조치(모니터링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주치의 연계), 고위험군과의 격리 등을 지키도록 권고함.

□ 임시보호자와 자택 밖에서 머무는 아동의 경우,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임시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음.

○ 이 외의 기본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증상 관찰 등 준수사항은 확진받은 부모 또는 간병인과 함께 격리된 아동과 동일함.

#### 라. 자가격리자 평가(사회서비스 요구도 평가)(CDC 홈페이지, 2020h)

□ 보건 당국에서는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를 자택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평가함.**

○ 격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COVID-19 추가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사례조사 및 추적 계획안에서 사회적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자가격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의 점검표를 통해 파악되며,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 여부가 불투명한 서비스는 지역 규약을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표 2-1〉 자가격리 시 필요 사회서비스 요구도 평가

내용	예	아니요	잘 모름	해당 없음
개인 침실이 있거나, 침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 화장실(욕실)이 있거나, 화장실(욕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 안에서 식수를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출하지 않고 세탁이 가능한가? (외출하지 않고 세탁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출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출하지 않고 식료품,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먹을)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출하지 않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용	예	아니요	잘 모름	해당 없음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격 접근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격 접근이 어려운 경우, 치료를 위해 개별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원격 접근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약물오남용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정 폭력, 학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격리(isolate/quarantine)가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기에 충분히 건강 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건강하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정 내 적절한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정 내 적절한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요원(contact tracer)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할 수 있고, 가족 또는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격리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어려움 없이(혹은 최소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격리가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급휴가(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구 내 단독 소득자(주 소득자)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실업자 또는 퇴직자인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아동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격리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과 함께 격리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인지를 평가·이해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적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감염 예방 장비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마스크(얼굴덮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장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손 소독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독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체온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료: CDC 홈페이지.(2020h).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php/self-quarantine\\_form.pdf](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php/self-quarantine_form.pdf)에서 2020.10.8. 인출.

#### 마. 격리 해제(CDC 홈페이지, 2020b)

- 확진자와 밀접접촉 후 추가 밀접접촉이 없는 경우, 밀접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함.
- 확진자와 함께 거주 중이며 추가 밀접접촉이 없는 경우(확진자는 개별 침실에서 격리),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간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를 실시함.
- 격리 중에 밀접접촉이 발생한 경우, 최후 밀접접촉일로부터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실시함.
- 확진자와 함께 거주 중이며 밀접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간병, 보살핌 등),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는 동안에는 절대 외출하거나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종료한 일로부터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실시함.

### 제4절 중국

#### 1. 검토 배경

- 중국은 COVID-19가 처음 발생한 국가로, 만연한 관료주의로 인해 발생지인 우한에 대한 봉쇄와 지원, 교통 통제 등 관련 조치가 뒤늦게 이뤄졌고, 이것이 COVID-19가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안승섭, 2020. 1. 28.).
- 그러나 곧 국가 차원의 격리·지역 봉쇄 조치 등 강력한 방식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고, 2020년 10월 한 달간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3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구글뉴스 코로나19 중국대륙 페이지, 2020).

□ 감염병에 대한 고강도 통제는 관련 법과 지침에서도 잘 드러남.

○ 중화인민공화국 감염병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제39조에 따르면 갑(甲)급 감염병 감염 의심자는 확진 전 지정된 장소에 단독 격리 치료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자와 밀접 접촉한 자(密切接触者)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과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2020. 2. 14.).

○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 계획(新型冠状病毒肺炎防控方案)에서도 1) **확진환자, 의심환자,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접촉자 및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2) **해외입국자**, 3) **기타 방역 요구에 근거해 격리가 필요한 인원 등 광범위한 인원**에 대해 **집중격리(시설격리)**를 통한 의학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함. 자가 의학 관찰(자가격리)은 일부 특수 인원(특수 인원)에 한해 실시하며, 구체적인 대상자 정의는 아래 ‘가. 대상자 정의’에서 기술하기로 함(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 산하 질병예방관리국, 2020. 9. 15.).

□ 고강도 격리 조치가 일반화된 중국의 사례가 국내 격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자가격리와 유사한 자가 의학 관찰 안내서(居家医学观察指南)를 중심으로 중국의 자가격리 내용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 2. 격리제도 운영(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 산하 질병예방관리국, 2020. 9. 15.)

### 가. 대상자 정의

□ 중국에서는 **집중격리(시설격리)**를 기본으로 하며, 집중격리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특수 집단은 자가 의학 관찰(자가격리)을 실시함.

○ 1) 밀접접촉자(密切接触者) 및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중 14세 이하 아동, 임산부, 기저질환자, 2) 해외입국자 중 입국 지역에서 7일 집중격리(1차 격리)

후 자택에서 7일 격리(2차 격리)를 실시하고, 입국 즉시·1차 격리 기간 중 5일 차·2차 격리 완료 시까지 총 3차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실시하는 자, 3) 퇴원 환자, 집중격리가 해제된 무증상 감염자, 4) 기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집중격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됨.

## 나. 격리 이행

### □ 격리 공간 내 기본 생활

- 자가격리자에게는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거주하는 것이 권고됨.
  - 단독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적 환기가 잘되는 방을 격리실로 사용하고, 타인과의 비접촉 조건을 유지해야 함.
- 격리실 내에 탁자를 구비해, 비접촉식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함.
  - 타 가구원과는 생활용품을 공유하지 않도록 함.
- 격리실 내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금함(특히, 다른 공간과 연결되는 시스템 에어컨 사용 금지).
- 최대한 단독 화장실을 사용하여 타 가구원과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도 최대한 격리실 내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함.
  - 식사 준비는 스스로 하고, 식전·용변 후·마스크 착용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거나 소독을 철저히 함.
- 격리실 내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격리실을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을 피하고, 접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함.

### □ 환기

- 창문을 열어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기계식 환풍기는 사용하지 않음.
- 화장실, 욕실 등 공용 공간은 환기와 소독을 실시함.

## □ 증상 모니터링

- 지역 모니터링 인력의 지도하에 자가격리를 실시함.
  - 지역 모니터링 인력은 관할 구역 내 자가격리 인원의 명단을 등록·관리함.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과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 모니터링 인력에게 보고함.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발열, 기침, 무기력,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모니터링 인력은 즉시 지역 위생 건강 행정부 및 관할 방역 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진료와 집중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 위생 관리 및 폐기물 처리

- 격리실 내에는 체온계, 화장지, 마스크, 일회용 장갑, 소독제 등 개인 방역용품을 구비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해 덮개가 달린 휴지통을 마련함.
-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식기·수건·의류·침구류는 엄격하게 세척·소독함.
  - 끓는 물에 15분간 열탕하거나, 250mg/L~500mg/L의 염소가 함유된 소독 용액에 15분간 담가 두었다가 물로 행균.
  - 접촉면(격리실 내 탁자, 문손잡이, 전화기, 스위치, 세면대, 좌변기 등)도 매일 250mg/L~500mg/L의 염소가 함유된 소독 용액으로 최소 1회 이상 소독함.
- 자가격리자가 타 가구원과 화장실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격리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격리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함.
- 사용하고 난 화장지, 마스크, 일회용 장갑, 기타 생활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담아 전용 쓰레기통에 넣어 매일 치움.
  - 이때 생활쓰레기는 유효 염소(500mg/L~1000mg/L)가 함유된 소독액 또는 75% 농도의 알코올을 분사해 완전하게 적신 후 폐기함.

□ 의료서비스 및 심리적 지원

○ 임산부는 정상적으로 산전 검사가 가능함.

- 사전 예약을 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검진 시 개인 방역을 준수하며, 검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함.

○ 기저질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적시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독단적으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됨.

- 구비된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까운 사회 위생 서비스 기구에서 추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음.
- 또한 병원 검진 시에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함.

○ 격리자에게 정신건강 핫라인 번호를 전달하고, 심리적 지지 및 심리 소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격리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 발생을 방지함. 또한 격리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즉각 정신보건 의료기관에 연계함.

○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COVID-19 확진자, 격리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별도 지침(新冠肺炎患者、隔离人员及家属心理疏导和社会工作服务方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 산하 질병예방관리국, 2020. 4. 7.).

-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지역 방역 총괄 팀에서 확진자·격리자·가족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방역-보건-사회서비스 측면의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함.
  - 지역별 감염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심리상담실 또는 사회서비스 부서를 설치하고, 1~2명의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함.
  - 필요시 지역 내 상급 의료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해 정신과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급 의료기관에서 지역 서비스 인력에 대한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받음.

-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하여 일상 복귀를 지지함.  
또한 자해·자살 충동이 높은 고위험군 발견 시 전담 조직에 바로 보고한  
뒤 관찰과 소통을 지속하며, 필요시 정신과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함.
- 경제적 취약계층 발견 시 지역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상담사가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 외출 및 타인의 방문

-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금하며,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  
지 모니터링 인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출 시, 일회용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인구 밀집 지역의 방문을 피함.
- 격리 공간 내로는 외부인의 방문을 일절 금하고, 타 가구원은 최대한 격리실  
내로 들어가지 않음.

### 다. 격리 이행 시 국가(보건 당국)의 지원·역할

- *지역 모니터링 요원은 자가격리자와 공동 거주자에게 기본 위생 및 감염병 예방  
지식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자가격리자의 의학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독거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 자가격리자와 접촉, 또는 자가격리 중 발생한 오염물 처리 시 방역 수칙(일회용  
작업모, 의료용 외과 마스크 및 작업복,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한 뒤 격리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격리자 이송 등 밀접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N95 마  
스크를 착용함.)을 지켜야 함.
- 자가격리자 주변의 공간(층계참, 계단 등)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폐기물은 1  
일 1회 이상 처리함.**

- 자가격리자 소재지의 지정된 전문 인력이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24시간 당 직 체제로 문제를 적시에 발견·해결하도록 함.

## 라. 격리 해제

- 해외입국자 중 “7+7”, “2+1” 조치에 자원한 자는 7일간의 집중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자가 의학 관찰)를 실시하고, 기타 인원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후 격리 해제를 함.
  - “7+7”이란 입국 지역에서 7일간 집중격리 후 자가격리를 7일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2+1”이란 입국 직후와 1차 격리 기간 중 5일 차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각 1회, 격리 기간 종료 후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1회 받는 것을 의미함.

## 제5절 일본

### 1. 검토 배경

- 일본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염병 유행 현황과 대응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코로나19 유행 초기 일본은 크루즈선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확진자를 통계에서 제외하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비해 검사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슈가 된 바 있음(전훈익, 2020. 3. 31.).
- 그러나 최근 홍콩의 Deep Knowledge Group(DKG)에서 검역효율, 정부효율, 응급대비 등 여러 항목을 토대로 발표한 코로나19에 안전한 국가의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함(Deep Knowledge Group, 2020).
  - Johns Hopkins CSSE ‘COVID-19’ daily reports 자료에 따르면 10월 10

일 기준 일본의 전체 확진자는 88,267명이며, 이는 전일 대비 588명이 증가한 숫자임.

- 기준 일자까지 사망자는 1,588명으로 1.8%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사망률인 1.8%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Johns Hopkins CSSE 홈페이지, 2020).
-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도쿄이며, 10월 10일 기준 27,3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 다음으로 와카야마현에서 11,057명, 가나가와현에서 7,4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a).
- 일본의 경우 각 도도부현에서 진행 중인 자가격리에 대한 통계를 7일 간격으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 그에 따르면 10월 7일 기준 일본 내의 자가격리자는 859명이며, 교토 415명, 아이치현 133명, 니가타현 113명 순으로 많음(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b).

## 2.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 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 해외입국자는 집, 친척집, 사택, 월 단위 입주 주택 및 호텔 중 원하는 곳에서 격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화장실이나 욕실이 공용인 시설에서는 격리가 불가함(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c).
- 단,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지정 공간이나 검역소가 지정한 시설에서 대기해야 함.
-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간 아래의 수칙을 지켜야 함(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d).
-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 외출 자제, 타인과의 접촉 자제
- 대중교통(전철, 버스, 택시, 국내선 비행기 등) 사용 금지

-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 체온 측정을 매일 실시해 발열 유무 확인
  - 심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 유무 확인
- 기침 및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귀국자·입국자 상담센터에 전화 연락해 체재하고 있던 지역을 밝히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찰
-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은 자주 손을 씻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마스크 착용에 유의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자를 한정

## 나. 농후(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 농후(밀접)접촉자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근거리에서 접촉, 혹은 장시간 접촉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일컫음.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접촉하거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약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이 있는 경우 농후(밀접)접촉자로 판단됨(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e).
- 단, 위의 기준에 따르면 하더라도 마스크 유무, 대화 여부, 대면 접촉 유무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해 농후(밀접)접촉 여부를 판단함.
- 농후(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등 보건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0e).
- 도쿄도 미나마타마 지역 보건소의 농후(밀접)접촉자 대상 권고 내용에 따르면, 14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도쿄도 미나마타마 홈페이지, 2020a).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도쿄도 미나마타마 홈페이지, 2020a, 2020b)

- 1일 2회 체온 측정,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의심 증상 발생 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도쿄도 발열상담센터로 연락
- 불필요한 외출이나 주변 사람과의 접촉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접촉(손) 관련 위생에 철저)
- 동거인이 있는 경우 1) 가정 내에서 수건을 공유하지 않고, 가능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 2) 기침 예절을 지키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 3) 접촉면은 알코올로 소독, 4) 비말, 콧물 등을 처리한 휴지는 즉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후 폐기

#### 다. 경증자의 자가격리(후생노동성, 2020)

##### □ 자가격리 대상자

○ 일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환자 및 무증상 환자**의 경우 **숙박 요양을 기본으로 하나** 가정 사정으로 본인이 자택에서 요양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택 요양이 가능함**.

- 고령자
- 기저질환이 있는 자(당뇨병, 심장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자, 투석치료 중인 자 등)
- 면역 억제 상태인 자(항암제 등의 사용)
- 임신 중인 자
- 고령자와 동거하는 자
- 의료종사자 및 복지·돌봄 직원 등 그 업무에서 고령자 등과 접촉하는 자(의료종사자 등)와 동거하는 자

##### □ 자가격리자 관리

○ 광역자치단체 등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격리자를 관리하나, 보건소의 업무 부

담 경감 차원에서, 또는 적절한 관리에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자택 요양 중인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해당 환자의 상담을 받는 체계 및 환자의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

- 건강 상태 파악 등 전문직 이외의 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업무
  - 보건소 부문이 아닌 본청 부문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업무 분담 재검토
  -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효율화
  - 일부 업무의 외부 위탁 등으로 업무 삭감
  - 보건소 직원 보강, 비상근 직원 등의 고용 인원 증가

○ 1일 1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자가격리자의 다음과 같은 건강 상태를 파악함.

- 체온
- 가래 또는 기침
- 숨쉬기 답답함
- 전신 권태감
- 구역질 및 구토
- 설사
- 의식 장애
- 기타(식욕, 소변, 콧물, 인후통 등)

○ 자택 요양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간호사 등에게 정기적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연락함.

- 표정, 외견
  - 안색이 뚜렷이 나쁜 경우
  - 입술이 보랏빛인 경우

- 평소와 달리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호흡수
  -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 누울 수가 없고 앉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경우
  - 어깨로 숨을 쉬는 경우
- 의식 장애
  - 멍하게 있거나 몽롱한 경우
  - 맥박이 뛰고 맥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 ○ 배식서비스 제공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사업에 의거하여 자가격리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자택 요양자 등에 대해 외출하지 않고 격리에 전념하기 위해 생활 지원 차원에서 배식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한 끼당 1,500엔, 1일 4,500엔(배송비, 음료비 제외)
- 동거 가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미리 정해진 배식 시간에 제공(예: 아침 식사 8시, 점심 식사 12시, 저녁 식사 18시)

#### □ 자가격리 해제

##### ○ 유증상 환자의 경우

- 증상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를 하지 않고 격리 해제가 가능함.
- 1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으로 판정된 후에 다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온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함.

##### ○ 무증상 환자의 경우

- 검체 채취 후 10일이 경과하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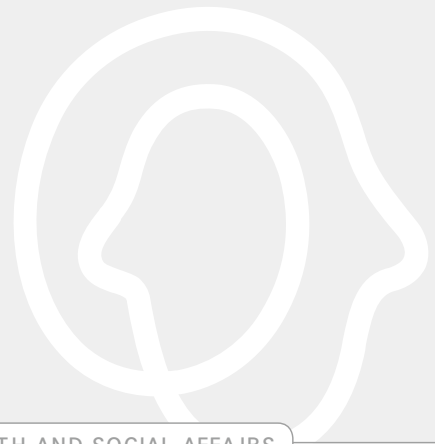
- 검체 채취 후 6일이 경과하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진행하며 음성인 경우 24시간 후에 재검사를 진행하며 2회 연속 음성으로 나온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함.

## 제6절 스웨덴

- 코로나19 유행 초기 스웨덴은 국경 봉쇄나 격리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느슨한 대응 방식을 취함.
  - 그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는 스웨덴의 대응 방식을 집단면역이라고 보도했으나(안두원, 2020. 4. 20.; 김연하, 2020. 8. 20.),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단면역이라는 방역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음.
- OECD에 따르면, 2017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2.21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7개보다 현저히 낮아 스웨덴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줌(OECD 홈페이지, 2020c).
  -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은 다수를 검사하기보다는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했음. 스웨덴의 퇴벤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함(Tedesjö E, 2020. 4. 3.).
- 또한 스웨덴은 2018년 1인 가구의 비율이 56.6%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요 유럽 연합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김형균, 2019, p. 6), 인구밀도는 2018년 기준  $1km^2$ 당 23.1명으로 현저하게 낮은 편임.
  - 영국 273.3명, 독일 231.5명, 프랑스 117.4명, 이탈리아 200.2명과 한국 514.1명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음(통계청 홈페이지, 2020).

- 스웨덴은 열악한 의료환경, 낮은 인구밀도, 높은 1인 가구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방역 계획을 수립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방식을 실시하기보다는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집에 머무르길 권장하는 등 **개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권고 조치를 따르도록 함.
-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스웨덴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였고, 6월 24일의 신규 확진자는 1,80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방역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존재하였음.
- Johns Hopkins CSSE ‘COVID-19’ daily reports에 따르면, 10월 10일 기준 스웨덴의 전체 확진자는 98,451명이고 사망자는 5,907명이며 6%의 사망률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여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이민정, 2020. 9. 17.).





## 제3장

### 우리나라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제1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제2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련 쟁점



## 제3장 우리나라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 제1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 1.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련 법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가격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에이(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 수단의 제한
  -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감염 여부 검사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 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0. 9. 29.〉

□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 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4.]

##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8. 11.>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 제70조의4(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지

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 제79조의3(벌칙)

-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자가격리제도 운영 기관

□ 전담 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b, p. 4)

- 자가격리자 1:1 전담 공무원 지정
- 모니터링 실시 요령에 따라 일일 2회 이상 실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관리)
-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상황 관리
-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시 격리병원 이송 및 검사
-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 연락 두절 등 무단이탈 시 보건직원, 경찰서 등 공조 대응
- 세부 대응 절차 및 요령은 접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 이행

□ 보건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b, p. 4)

- 시·도별 접촉자관리대책(민간자원, 비상자원, 격리시설 등) 수립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
  - 안내 사항: 자가격리 대상·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과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킨리 조치 설명

○ 코로나19 임상 증상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 3.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 □ 자가격리 대상자의 정의

○ 초기 지침에서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로 정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22)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자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자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이 발생한 자

○ 이후 조정된 지침(20.11.10 개정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정(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c, p. 49)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 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으로 분류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b, p. 5)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sup>1)</sup>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sup>2)</sup>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 금지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
  - 의류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건강 수칙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실시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sup>3)</sup>을 의무적으로 설치

1)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2)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

3)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 또는 자가진단앱(관할 보건소)으로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 자가진단앱: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44)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sup>4)</sup>이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이 가능<sup>5)</sup>
-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유선확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등의 대비 필요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병원진료, 치료, 시험 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의 필요한 경우 적용)

-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도록 격리 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이동

○ 자가격리 통보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가 예정된 경우(병원진료, 치료 등이 예정된 경우 적용)

- 치료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 뒤 표준주의하면서 치료 실시(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를 위해 외출 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외출 직전 체온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하며 외출의 전(全) 과정을 동행)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28)

○ 동작감지 모니터링 기능<sup>6)</sup>: 자가격리자의 격리 장소 내 체류 여부 확인

○ 증상 발생 여부 모니터링: 1일 2회(오전, 오후) 이상 확인하고(앱 또는 유선),

4)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가 협의하여 약 수령

5)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6) 하루 중 2시간 동안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2회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하여 확인

모니터링 담당자는 1일 1회 유선으로 격리 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자가 진단앱 적용자는 유선확인 제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관리: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의무)과 연동되는 안심밴드를 착용·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지자체에서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조치
-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

□ 자가격리 해제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44)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에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sup>7)</sup>)
- 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 대상: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 사회복지시설<sup>9)</sup>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 확진환자의 동거 가족(동거인 포함)
  - 만 65세 이상 접촉자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 국가 입국자 등
- 검사 결과에 따른 격리 해제 조치 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

7) (예시) 최종 접촉일(4월 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월 15일 정오(12:00)에 격리 해제

8)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 해제 시각 변동 가능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sup>10)</sup>

##### ○ 유급휴가비

-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sup>11)</sup>
- (지원 금액)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 사본

##### ○ 생활지원비

-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서류) ① 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표 3-1〉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주: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에서 2020. 12. 24. 인출.

10) 중앙방역대책본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11)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격리 조치 위반자,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생활용품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시행일 2020. 9. 12.]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86)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음(시설 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5호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가격리 면제자(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p. 16)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미국 외교관(A1), 미국 관용여권(A2) 비자 소지자는 주한미군(A3)과 동일하게 진행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sup>12)</sup>
  - 학술·공익적 목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 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아이디(ID)카드 지참)
- 입국자 중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격리 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이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어객선(한중 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12)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8월 14일 국내 출항 또는 8월 27일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 제2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련 쟁점

### 1. 조사 방법

□ 자가격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을 관리자와 참여자 측면에서 각각 파악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와 자가격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함.

○ 사업 담당자 간담회 실시 현황

일정	지역	대상자 기본 정보
10월 30일(금)	세종	전담 공무원(1명)
		모니터링 요원(2명)
11월 2일(월)	경기	전담 공무원(1명)
		모니터링 요원(2명)
11월 30일(월)	충북	모니터링 요원(1명)
12월 1일(화)	대구	전담 공무원(2명)

○ 자가격리 경험자(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자의 보호자(동반 격리)) 면담 조사 실시 현황

일정	지역	대상자 기본 정보			
10월 12일(월)	세종	여(30대)	자가격리 당사자	국내접촉	단독 격리
		여(30대)	자가격리 당사자	국내접촉	단독 격리
11월 4일(수)	세종	남(30대)	자가격리 당사자	해외입국	단독 격리
		남(40대)	자가격리 당사자	해외입국	단독 격리
		여(20대)	자가격리 당사자	해외입국	가족과 동반 격리
		여(50대)	자가격리 당사자의 가족(모)		가족과 동반 격리
		여(40대)	자가격리 당사자	해외입국 (가족 전원)	가족과 동반 격리
11월 10일(화)	경기	남(60대)	자가격리 당사자	국내접촉 (배우자 확진)	단독 격리
		남(60대)	자가격리 당사자	국내접촉 (배우자 확진)	가족과 동반 격리
		여(40대)	자가격리 당사자의 보호자(모)		가족과 동반 격리
		여(40대)	자가격리 당사자의 보호자(모)		가족과 동반 격리

## 2. 자가격리 경험자 면담 조사 결과

### 가. 건강 관리 측면의 쟁점

#### □ 코로나19 증상 관리

○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함.

- 개인이 인지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에 대해 즉시 확인하는 것이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확진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낌.

“장기 비행 같은 경우에 식사 문제나 음료 문제,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식사 두세 번, 화장실 한두 번 정도는 의도치 않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중략)...코로나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건지. 그냥 장기 비행을 해서 몸살기가 (있는 건지) 약간 부담감은 있는데. 또 저희가 (병원)에 가려면 119도 다시 불러야 되고 그래서 좀 부담은 있었습니다.” (해외입국자)

#### □ 기저질환 등 질병 관리

- 만성질환자 중 약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평소에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아 두기 때문에 기저질환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음.
- 경증의 새로운 증상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처방을 받아 주기도 하고, 단골 병원에 전화하여 처방을 받아 주변의 가족이 대신 받아 주는 등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함.
-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처방과 진료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인터뷰 대상자 중 위중하고 긴급한 건강 관련 문제를 경험했던 경우는 없어서 관련 대응의 문제점을 확인하지는 못함.
- 자가격리 종료 직후 의료기관에서 경증의 증상에 대해 진료를 연기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있었음.

#### □ 주변의 인식, 편견

-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가족, 친척, 지인으로부터 정서적, 물리적 지원을 받기도 함.
- 반면,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에는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대인 접촉을 자발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피하는 경우도 발생함.

“(자가격리 이후) 나만 혼자 운동하러 헬스 다니지. 그 친구들은 오지를 않아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운동을 한다. 안 와요. 그니까 왕따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내접촉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가격리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한테) 뭐를 안 해도 내가 자가격리를 해서 그런가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래 가더라고, 한두 달 가더라고.” (국내접촉자)

## □ 정신건강 관리

○ 자가격리에 따른 정신적 문제는 대체로 해외입국자와 국내접촉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었음.
- 국내접촉자는 준비 없이 갑자기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절차와 상황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기도 함.

“전부터 저렇게 걸리면 이런 매뉴얼이 있다 딱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된 거잖아, 이거는.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며칠을 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나.” (국내접촉자)

“개인적으로는 불안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접접촉자가 아닌 접촉자가 왜 격리를 해야 되는지를 앞에 좀 힘드시더라도 부연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중략)...자꾸 모든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게 되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들의 단어나 문장이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모르게 엄청 집중력(이 생기고), 예전에 영어 수능 볼 때 리스닝 테스트처럼.” (국내접촉자)

“밖에도 나가지 마라, 탄 사람 걸리면 안 된다. 모든 쓰레기도 그냥 갖고 있어라.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국내접촉자)

- 자가격리자들은 대체로 답답함을 경험했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우울을 겪기도 함.

“저녁에 다운이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서 나 너무 다운돼 이러니까 친구가 너 맥주라도 마셔야 되겠네 이려고 보내 주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큰 힘이 됐어요. 힘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주말인 토요일이 왔었을 때 그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날씨도 하필 엄청 좋았었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국내접촉자)

“매일 돌아다니고 맘대로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정지가 되니까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심정이...(중략)...감옥살이보다 더 힘들어.” (국내접촉자)

“홈트(홈 트레이닝)를 제가 자가격리 하는 동안 거의 2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막 저녁 시간에 미칠 것 같으니까 에너지를 발산해서 땀을 흘리던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랑 홈트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걸었던 스피드로 지금 못 걸어요, 운동을 하면 그게 신체적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흔인 것 같아요.” (국내접촉자)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자에게 정신건강 지원 기관으로 홍보되기는 했으나, 자가격리 기간에 수행한 역할은 한계가 있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 기간 중 대상자들에게 대체로 한 차례 연락을 했고, 그 시점은 일정하지 않았음.

“(센터에서) 어떠냐고 물어봐서 아직은 괜찮아요 그랬는데…. 왜냐면 격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전화 왔으니까…. 그랬더니 격리 중에 힘드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다시 연락 안 왔고요. 그런데 제가 센터에 전화하면 (센터에서) 무슨 말을 해 주지, 뭘 도와주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연락은 제가 해 본 적은 없고요.” (국내접촉자)

“부모님한테도 신경 쓰실까 봐 말을 못한 얘기를 그분(센터 담당자)한테 했어요. 그런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정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중략)…나는 답답하다고 그런 건데 형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전화를 한 건가…(중략)…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격리가 돼 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여러모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고.” (국내접촉자)

## 나. 복지 지원 측면의 쟁점

### □ 자가격리 물품 지원

○ 자가격리 물품 중 소독용품은 활용도가 높았음.

○ 반면, 음식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음.

- 제공된 음식은 대부분 조리 및 가공이 되어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음.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도 성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음식이 제공되어, 맵거나 아동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은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

이 있었음.

○ 돌봄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가족에게는 물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인터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에 진행되었는데, 해당 시점에는 공동격리자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마다 달랐을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3판(2020.11.10.)이 발표되면서 영유아 공동 격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짐.
- 지침 제9-3판에 따르면, 공동격리자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음(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c, p.50).

“(자가격리 물품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거든요. 버릴 판이에요. 잘 먹은 건 햇반 그리고 라면. 죽도 넣어 주시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그리고 소독제는 정말 좋더라고요. 뿌리는 소독제.” (국내접촉자)

“저는 애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애들을 대비한 물품을 좀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어른용이었고. 음식도 다 매운 거였고. 라면도 다 매운 거였고. 근데 우리는 어린애다 보니 애들용은 없는 거예요.” (국내접촉자)

“우리도 처치 곤란한 물건이 계속 있어요. 즉석식품 같은 건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국내접촉자)

“통조림, 죽, 라면 이런 음식들인데, 뚜껑 열고 안 건드렸어요. 어디 기부할 수 있나요?” (해외입국자)

#### □ 식사

○ 자가격리 중 식사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해결하기도 했음.

○ 그러나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거나, 평소 요리를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 문제가 우울, 스트레스로 이어짐.

“그런 걸(지원받은 음식) 14일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걸.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지원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인이 밥해 먹고 살다가 나 혼자 밥해 먹어야 되니 이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중략)...(집에) 없었죠 아무것도. 그냥 쌀은 있으니까 밥만 해 갖고 옛날 김치 있는 거 묵은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만 갖고 대충 사는 거예요 14일.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아주 멘탈 붕괴죠 아주.” (해외입국자)

## 다. 제도 운영 관리 측면의 쟁점

### □ 정보 제공 및 소통

○ 자가격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음.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이전에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파악해 두어 담당 공무원에게 새롭게 정보를 얻을 필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대체로 소통에 대해 만족해 함.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들이 다 되게 위해 주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게 상냥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꼬박꼬박 체크해 주시고. (앱 오류 때문에) 이탈됐다고 뜨더라도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해외입국자)

- 반면 국내접촉자는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했으나 그것이 잘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저는 보건소에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온 거 말고는요. 다행히도 000(동일한 장소에서 접촉으로 동시에 자가격리가 된 지인)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들었지 그것 아니고서는 사실은 되게 힘들었죠...(중략)...새벽 일찍 일하시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화가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내접촉자)

- 또한 국내접촉자는 갑자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거나 당황해 자가격리 초기에 이루어지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했음.
- 특히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국내접촉자는 확진된 가족의 치료 등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에 만족도가 낮음.

○ 자가격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소통은 안전보호앱, 전화, 문자, 카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자가격리제도로 대상자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자가격리 중인데 왜 애를 학원을 보냈어? 저러면 진짜 안 되겠다. 그게 학습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학원으로 퍼지면 이게 나로 인해서 완전히... 친구들도 못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국내접촉자)

“뚫리려면 얼마든지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중략)...나쁜 사람 나쁜 마음먹고 하면 얼마든지 소용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해외입국자)

#### □ 자가격리 공간

○ 일부 지역은 자가격리 공간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대체로 자가격리 공간은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 다른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도 함.
-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인의 가족이 자택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함.
- 가족의 확진으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치료를 마친 확진자 가족이 다시 합류하는 상황이 발생함.
  - 자가격리 중인 가족의 확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마친 확진자 가족이 재확진될 위험성이 있음.

-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숙박 시설을 이용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름.
-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공항에서 자가격리 공간을 확정해 보고해야 밖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음.
  - 업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자가격리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면 숙박업체라든가 연결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000에서는 숙박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에어비앤비를 알아보셔야 된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원룸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실제 한 여섯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중략)…오피스텔 공실 있는 데로 갔는데 (자가격리 한다고 하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입국자)

“공항에서는 정확한 거주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못 나간다고 하고. 입국장도 아닌 통로에서 그걸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의자도 없고. 한두 시간 거기 서 있었는데 방법이 많이 없어요.” (해외입국자)

#### □ 자가격리 수칙 준수 및 관리

-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가족과 엄격하게 분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자가격리자 가족과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은 마련돼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2주간 같은 집에 머물며 완전히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였음.
  -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확진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소독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는 데 불안을 느끼기도 함.

“(확진된 아내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나서 소독하는데, 글썄 나는 소독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0분 정도 할 줄 알았더니 5분 만에 하고 다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좀 우리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그 소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반 있다가 들어가라고 해서. 차 속에 있다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또 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우리 격리자가 안심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국내접촉자)

○ 아동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돌봄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이루어짐.

- 돌봄자는 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되고, 이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인 아동과 접촉해 지내지만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님.
- 즉, 공식적으로 돌봄자의 외출은 가능한 상황이 됨.
- 돌봄자가 자가격리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결국 아동의 다른 형제도 비공식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됨.
- 자가격리 아동과 다른 형제가 한 명의 돌봄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자와 접촉하여 생활하고 일상생활이 통제될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됨.

“보건소 연락이 온 날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선생님, 애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작은 아이가, 동생이 자가격리를 들어가서 (큰아이가) 학교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2주를 같이 그냥 집에. 그날부터 학원도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동생이 자가격리를 들어가니까 못 가겠다. 학원비도 그렇다고 해서 깎아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낼 거 다 내고. 제가 안 간 거기 때문에. 애가 자가격리인 것도 아니고 동생이 자가격리인데.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한 거고.” (국내접촉자)

○ 2주의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가격리 직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다녀가는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함.

- 자가격리가 시작된 이후 검사를 받기 위해 대체로 보건소로 직접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일시적으로 이탈이 일어나기도 함.

“저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였잖아요. 지피에스(GPS)가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이 가니까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어린 아이들 몇 명은 시시티브이(CCTV) 없는 데로 해서 나갔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엄마(자가격리자 아동을 돌보는 엄마)가 집에 핸드폰 놔두고 마트도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엄마들끼리 얘기하기를 (유치원 자가격리 대상자가) 서른몇 명이었으니까 되게 많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놀이터도 밤에 몰래 갔다 왔다... 담당 공무원이 불시로 연락을 주긴 하지만 지피에스(GPS)는 아파트 같은 부분만 찍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사람을 좀 저는 꽤 들었습니다.” (국내접촉자)

#### □ 자가격리 시작 및 기간의 적절성

-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확진자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되지 않으면, 이송 대기 기간부터 가족들의 자가격리가 시작되어 이송된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이 추가됨.
-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인지하기까지 시간 간격이 발생함.
  - 특히 확진자 접촉이 주말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짐.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보다 일단 확진자 동선이 문자로 오잖아요... (중략) ... (회사) 총무팀에서도 문자 보내시니까 그제서야 보고 먼저 총무팀에 연락을 했어요... (중략) ...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고보다 먼저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기다리시라 역학조사 중이다, 접촉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알려 줄 테니까 기다리시라 그랬는데... (중략) ... 총무팀에서는 일단 집에 가서 격리를 하시고 내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출근을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인지한 것도 이제 총무팀 문자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인지를 한 거고요. 만약에 몰랐었다면 이제 저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가족도 만나고 지인도 만났겠죠. 금요일 밤이어서.” (국내접촉자)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지속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음.
  - 해외입국자는 입국 직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 종료 직전에 검사를 받음.

- 국내접촉자는 자가격리 시작 직후에 검사를 받음.

○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다고 느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자가격리 중 이탈을 방지하거나,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누가 확진일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왔다 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그냥 얼버무리는 느낌? 아무래도 장갑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터치하셔야 된다 이러거나 뭐 이런 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고 ‘그냥 가세요. 여기서 내려 줄게요.’ 관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공무원이 잘 들어갔는지 감시를 하신다던가.” (해외입국자)

- 반면, 자가격리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등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에 자가격리를 해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장애

○ 자가격리 공간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안전보호앱은 오류가 잦았고,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앱의 오류를 지적함.

- 정상적으로 자가격리 공간에 있음에도 이탈한 것으로 경고가 울리는 일이 많아 담당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방문하거나 연락하게 됨.

“빨간 불이 계속 뜨는 게 있어서. 내가 계속 앱을 다시 켜고 들어가도 결국엔 담당 공무원 연락 가고, 담당 공무원이 절 풀어 주고, 계속 그런 식이 있었어요. 한 네다섯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접촉자)

#### □ 쓰레기 처리

○ 자가격리 기간 중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 쓰레기의 양이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함.

- 과도한 양의 쓰레기는 악취, 공간 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 많음.

○ 쓰레기는 자가격리 종료 후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중간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 담당자에게 쓰레기 수거를 요청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제가 분명히 쓰레기 수거를 부탁드렸고 쓰레기봉투도 더 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수요일 날 분명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조그만 게 쌓여도 엄청 좁아 보여요...(중략)...공무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록을 안 해 주셨나 봐요. 완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아,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최소한 메모를 남기셨어야 했는데...(중략)...제 이름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돼 가지고 토요일 날 치워 주셨어요...(중략)...지인들이 막 반찬도 갖다주고 음식도 두고 가고 이러니까 먹을 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죠.” (국내접촉자)

○ 쓰레기 수거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됐고, 일부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함.

- 자가격리 종료 시까지 확진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가격리자가 직접 분리수거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음.

### 3. 자가격리 사업 담당자 간담회 결과

#### 가. 건강 관리 측면의 쟁점

##### □ 코로나19 검사

○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이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격리 시작 다음 날 보건소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건소까지의 이동은 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자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을 지원함.
- 일부 지자체는 지침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함.
- 해외입국자에 대해 지역 기차역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격리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자택으로 방문해 검사하여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해외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지정된 공간에서 격리 후 자택으로 이동해 격리를 지속하도록 하기도 함.

#### □ 코로나19 증상 관리

-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하루 두 차례 입력하는 증상, 특기사항 등을 근거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밖에 문자,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으로 접수되는 애로사항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파악함.
- 그러나 코로나19 증상을 포함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가 야간에 발생할 경우 사업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 기저질환 등 질병 관리

- 자가격리자가 병원 방문을 희망하나,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임.
- 자가격리자가 방문이 가능한 병원 명단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자가격리자, 보호자가 직접 방문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대형병원에서는 구급차 이용 시 자가격리자를 받아 주기도 하지만, 코로나19 검사 후 외래 진료를 받는 데까지 만 하루가 소요됨.
- 자가격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외처방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 담당자 또는 보호자가 대신 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함.
- 투석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상 관리 및 이송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신건강 관리

- 원칙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 기간 중 1회 (이상)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나. 복지 지원 측면의 쟁점**

□ 자가격리 생활용품 지원

- 생필품과 위생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현금과 물품 지원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생활용품은 사업 담당자가 직접 배달함.
  - 자가격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배송비 절감을 위해 배송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음.
- 자가격리자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이 추가적인 생활용품을 구매해 주거나 식사를 지원해 주기도 함.
  -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자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물품 구매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함.

□ 돌봄 지원

- 자가격리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공동격리자로 지정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돌봄 지원이 취약한 실정임.

**다. 제도 운영 관리 측면의 쟁점**

□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통

- 제도 설계 시에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 1명당 자가격리자 1명을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가 급증하는 경우 1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함.

- 자가격리자가 단시간에 다수 발생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구두 안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 누락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국내접촉자의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갑자기 알게 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등 통보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1일 2회 입력되는 증상을 통해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화, 문자,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상자들과 연락을 취함.
  - 담당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보호앱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 전담 부서와 보건부서와의 업무 분담

- 담당 업무가 분리돼 있더라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나, 업무 폭증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두 부서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 정보, 자가격리자의 증상 관리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 전담 부서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관리하는데, 이탈자를 고발하는 업무는 보건소가 담당함.

#### □ 자가격리 수칙 준수 및 관리

- 자가격리자의 거주지가 독립적으로 공간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지역 내 격리시설로 인도해 시설격리를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별로 격리시설의 수용 정도가 달라, 자가격리자가 직접 격리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자가격리자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일 때 자가격리 수칙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자가격리자가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로서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을 찾아보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임시보호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자가격리자와 자녀가 함께 격리되기도 함.

○ 고령자는 자가격리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 공간을 종종 이탈하기도 함.

○ 자가격리자의 외출 시 모니터링 요원이 동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수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시험 응시 등 외출의 범위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시간과 공간 모두 부담으로 작용함.
- 야간 응급상황 시 모니터링 요원이 즉각적으로 동반하지 못해, 응급 조치 이후 연락이 되는 사례도 발생함.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장애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와 자가격리자의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발함.

- 불필요한 출동 등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반대로 실제 대상자가 이탈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앱의 오류가 잦아 자가격리자의 민원이 잦음.

○ 해외입국자 중 특히 외국인은 공항 와이파이를 이용해 앱을 설치했다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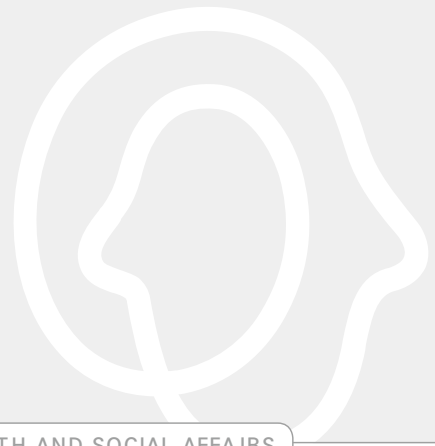
#### □ 쓰레기 처리

○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에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나, 자가격리자가 호소하는 경우(영유아 기저귀 쓰레기 등)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간에 처리하기도 함.

○ 쓰레기 수거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됨.

-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의료용 폐기물로 수거하거나, 확진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을 달리하기도 함.
- 자가격리 중 확진이 되면 의료용 폐기물로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확진이 되지 않고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일반 쓰레기로 자가격리자가 처리함.





## 제4장

###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욕구 조사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제2절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제3절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제4절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제4장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욕구 조사

###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 목적 및 내용

##### □ 조사 목적

○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발생 가능성, 참여자의 불편감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 자가격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국내외 자가격리제도 사례 고찰, 자가격리 사업 담당자 간담회 결과, 자가격리 경험자 면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① 건강 관리, ② 복지 지원, ③ 제도 운영 관리 측면에서 자가격리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구성해 자가격리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조사 내용

〈표 4-1〉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및 보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시 담당 공무원의 대처 수준</li> </ul> </li> <li>- 만성질환자 중 자가격리로 인한 의료이용 어려움 및 기저질환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이용: 정기적인 병원 방문, 추가 약 처방</li> </ul> </li> <li>- 자가격리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 발생 시점, 담당 공무원 및 보건소와의 즉각적인 소통, 병원 섭외 과정의 어려움</li> </ul> </li> <li>-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낙인</li> <li>- 자가격리 중 정신적 어려움 경험(우울, 고립감 등)</li> <li>- 자가격리 종료 후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여부</li> <li>- 자가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시점</li> </ul> </li> <li>- 자가격리 중 불건강한 식사(영양 불균형, 불규칙) 여부</li> <li>- 자가격리 중 운동량 감소 여부</li> </ul>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지원액의 충분도</li> </ul> </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중 사업체 운영 방식(고용주 및 자영자 대상)</li> <li>- 자가격리 중 현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식료품, 체온계 등 위생키트, 기타 생활용품,</li> <li>● 현물 지원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li> </ul> </li> <li>- 자가격리 중 식사 준비 방법</li> <li>- 자가격리 중 주요 도움처(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 쓰레기 처리 등)</li> <li>- 돌봄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내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li> <li>● 돌봄 유형(본인 또는 다른 동거 가족이 돌봄, 거주지가 다른 보호자가 돌봄,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등)</li> <li>● 격리 당사자의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li> </ul> </li> </ul>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 경로, 격리 대상자 인지 시점과 통보 시점(보건소 통보) 간 격차</li> </ul> </li> <li>- 대상자 통보 전 대면활동(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여부</li> <li>- 자가격리 생활수칙 인지 경로</li> <li>- 자가격리 중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중 소통한 공무원 수, 여러 공무원과 소통 시 느낀 점</li> <li>● 의사소통의 규칙성(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뤄짐.)</li> <li>● 의사소통의 적시성(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뤄짐.)</li> <li>● 의사소통의 충실성(준수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함.)</li> <li>● 의사소통의 적극성(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함.)</li> <li>● 전반적인 만족도</li> </ul> </li> <li>- 공무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쾌감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쾌감을 경험한 이유, 불쾌감 경험 시 대처 방식</li> </ul> </li> <li>-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인지 여부</li> <li>- 코로나19 검사 여부, 검사 시점</li> <li>- 자가격리제도(수칙)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기간</li> <li>●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 금지</li> <li>● 발열 등 증상에 대한 1일 2회 입력 신고</li> <li>●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li> <li>● 독립적인 생활(식사, 화장실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li> <li>●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 설치</li> </ul> </li> <li>-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자가진단앱 이용 시 불편사항</li> <li>- 자가격리제도(수칙) 준수 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 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대면 경험</li> <li>● 외부 외출 경험, 외출 사유, 외출 시 공무원 동반 여부</li> <li>● 1일 2회 증상 입력</li> <li>● 자가격리 중 쓰레기 배출 방식</li> </ul> </li> <li>- 자가격리 형태(단독 격리, 동반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 격리 시 생활수칙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여부, 생활 분리 수준</li> </ul> </li> </ul>
제도 개선 및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 상담</li> <li>- 실내 활동(실내 운동)에 대한 교육</li> <li>-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li> <li>-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방지</li> <li>- 휴대전화, 와이파이 등 실시간 활용 가능한 장비 지원</li> <li>-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안내</li> <li>- 자가격리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의 확대 및 안내</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품, 생활지원비 등 지원 확대</li> <li>- 필요에 따른 지원용품 다양화(성인용, 아동용)</li> <li>- 자가격리자 및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li> </ul>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격리 장소, 자가격리 경로(해외입국, 국내접촉), 동거인 확진 여부</li> </ul>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2. 조사 방법

### □ 조사 대상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협조하에 전국 지자체의 자가격리 전담 부서 및 보건소에 조사 대상자 모집 공문을 발송함.
  - 지자체의 자가격리 사업 담당자가 관할 지역 내 현재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구함.
  - 조사 참여자는 2020년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1차로 모집하고, 11월 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추가로 모집함.
    - 최종적으로 조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은 총 841명으로 집계됨.

〈표 4-2〉 조사 참여 동의자 현황

(단위: 명)

지역	동의자 수	지역	동의자 수
서울	164	강원	97
부산	38	충북	33
대구	11	충남	77
인천	66	전북	53
광주	-	전남	19
대전	16	경북	81
울산	39	경남	44
세종	31	제주	51
경기	16	지역 미확인	5
총계	841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 조사 방법

- 조사 참여에 동의했던 841명에게 2020년 11월 20일(금)부터 12월 4일(금)까지 약 2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기간 중 전화 및 문자로 조사 참여를 안내·독려함.
  - 전화 조사의 경우 문해력이 낮은 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문항을 최소화함에 따라 파악 가능한 내용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 반면 웹 기반 설문조사는 문해력이 낮은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화 조사에 비해 다수의,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조사는 웹 기반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함(제2020-98호).
- 이미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자가격리 종료 후 등록된 전화번호가 바뀐(말소된) 경우, 조사 매체(웹)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령자, 모집 당시에는 조사 참여를 희망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꾼 대상자 등 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총 41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완료함.

〈표 4-3〉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	260	63.4
	여	150	36.6
연령	20대 이하	118	28.8
	30대	105	25.6
	40대	88	21.5
	50대	61	14.9
	60대 이상	38	9.3
거주지역(1)	서울특별시	95	23.2
	부산광역시	15	3.7
	대구광역시	12	2.9
	인천광역시	28	6.8

구분		인원수	백분율
	광주광역시	2	0.5
	대전광역시	16	3.9
	울산광역시	15	3.7
	세종특별자치시	15	3.7
	경기도	34	8.3
	강원도	45	11.0
	충청북도	6	1.5
	충청남도	34	8.3
	전라북도	15	3.7
	전라남도	8	2.0
	경상북도	20	4.9
	경상남도	25	6.1
	제주특별자치도	25	6.1
거주지역(2)	읍·면지역	88	21.5
	동지역	322	78.5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220	53.7
	비임금근로자	43	10.5
	실업자	48	11.7
	비경제활동인구	99	24.1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92	22.4
	200만 원~399만 원	139	33.9
	400만 원~599만 원	86	21.0
	600만 원 이상	93	22.7
자가격리 공간 (중복응답 인정)	자택	263	64.1
	친척, 지인의 집	70	17.1
	개인적으로 대여한 숙박 시설	75	18.3
	지자체에서 제공한 시설	17	4.1
자가격리 공간 특성(1)	거실 없음	103	25.1
	거실 있음	307	74.9
자가격리 공간 특성(2)	방 1개	112	27.3
	방 2개	90	22.0
	방 3개	208	50.7
자가격리 기간	14일 미만	34	8.3
	14일	140	34.1
	14일 초과	236	57.6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285	69.5
	국내접촉	125	30.5
동거인 확진 유무	확진됨	14	3.4
	확진 안 됨	396	96.6

주: 자가격리 공간은 중복응답을 인정해 % 합산이 100.0을 초과함.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제2절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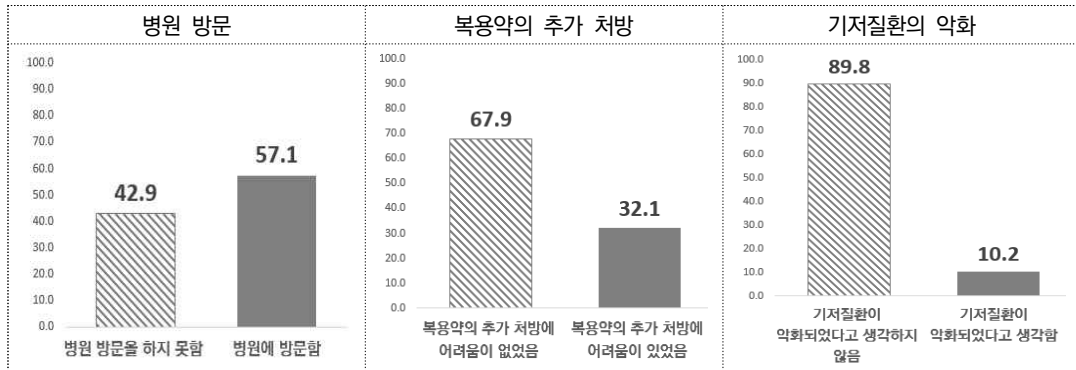
### 1. 기저질환 관리

- 자가격리자는 시급성에 따라 병원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면서 일부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게 하였음.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담당자 동반하에 이동이 가능함(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c).
- 그러나 자가격리자의 기저질환 관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자가격리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자가격리 중 기저질환자의 긴급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이태운, 2020. 7. 9.)가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는 시기에 모니터링 요원이 여러 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외출을 위해 동반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따를 수 있음.
    - 국내 코로나19 2차 유행이 가까운 무렵에 이미 자가격리 담당자들의 피로 누적이 이슈화된 바 있음(강승훈, 2020. 8. 11.).
- 조사에 응답한 자가격리 경험자 중 12%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기저질환자였음.
  - 기저질환자의 42.9%가 자가격리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침에 따르면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지만, 기저질환자의 32.1%가 복용약을 추가로 처방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자가격리 이후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경우는 10%가량이었음.

[그림 4-1] 자가격리 중 기저질환 관리 현황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2. 정신건강 관리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충격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함.

- 자가격리자들은 확진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승엽, 김영훈, 김현중, 2020. 9. 6.), 자신으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임찬영, 2020. 3. 2.)을 갖게 됨.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가격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점수, 율분지수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됨(이후연, 2020. 4. 10.).

- 이에 대응하고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확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격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음(중앙사고수습본부 홈페이지, 2020).

- 자가격리는 경우에 따라 준비된 상황에서,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후자의 상황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두드러졌음.

□ 전화 조사 결과,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3.9%였음.

○ 정신적 어려움은 성별, 연령, 경제활동 상태, 자가격리 경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 국내접촉자는 해외입국자에 비해 자가격리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전적 준비나 제도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이었음. 여성이나 고령자는 정신건강에서 취약한 집단이지만, 자가격리 중 정신적 어려움은 특정 집단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음.

〈표 4-4〉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경험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X <sup>2</sup>	p-value
전체		139	33.9	-	-
성별	남	83	31.9	1.24	0.27
	여	56	37.3		
연령	29세 이하	34	28.8	5.86	0.21
	30~39세	35	33.3		
	40~49세	34	38.6		
	50~59세	18	29.5		
	60세 이상	18	47.4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68	30.9	2.18	0.16
	비임금근로자	21	48.8		
	실업자	16	33.3		
	비경제활동인구	34	34.3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93	32.6	0.67	0.41
	국내접촉	46	36.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조사 결과,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응답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21.5%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음.

○ 그런데 이 경우가 자가격리 중에 발생한 정신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인지, 또

는 자가격리 종료 후에 시작된 것인지 구분되지는 않음.

○ 인터뷰에 따르면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 지인의 만남, 일상 생활 등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인터뷰에서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시작된 국내접촉 집단이 주변의 시선을 불편해했는데, 조사 결과에서도 이 집단이 자가격리 종료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4-5〉 자가격리 종료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X <sup>2</sup>	p-value
전체		88	21.5		
성별	남	51	19.6	1.44	0.23
	여	37	24.7		
연령	29세 이하	27	22.9	6.47	0.17
	30~39세	29	27.6		
	40~49세	13	14.8		
	50~59세	14	23.0		
	60세 이상	5	13.2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46	20.9	0.14	0.99
	비임금근로자	9	20.9		
	실업자	11	22.9		
	비경제활동인구	22	22.2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51	17.9	7.06	0.01
	국내접촉	37	29.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자가격리 기간 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 참여자 중 45.1%가 이러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자가격리 중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33.9%), 자가격리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21.5%)보다 더 높았음.

-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시점은 응답자의 다수 (88.6%)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고, 응답자의 30.3%는 자가격리 종료 후 일정 기간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했음.

〈표 4-6〉 자가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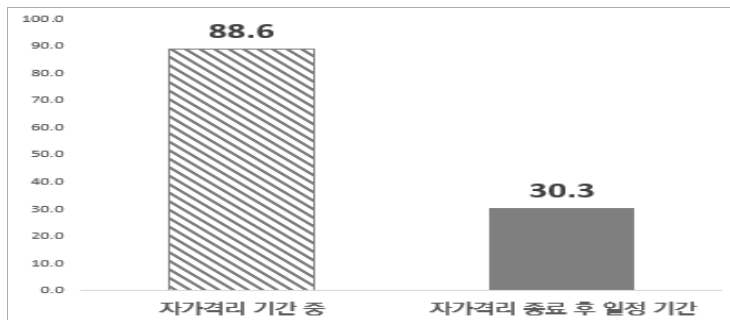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X <sup>2</sup>	p-value
전체		185	45.1	-	-
성별	남	110	42.3	2.27	0.13
	여	75	50.0		
연령	29세 이하	52	44.1	3.87	0.42
	30~39세	48	45.7		
	40~49세	44	50.0		
	50~59세	29	47.5		
	60세 이상	12	31.6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95	43.2	1.53	0.68
	비임금근로자	21	48.8		
	실업자	25	52.1		
	비경제활동인구	44	44.4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121	42.5	2.68	0.10
	국내접촉	64	51.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그림 4-2〕 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 제공 시점

(단위: %)



주: 자가격리 중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164명) 중 각 서비스 제공 시점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3. 생활습관 관리

□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에 변화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인터뷰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89.5%가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감소했음.

〈표 4-7〉 자가격리 중 불건강한 식사(영양 불균형 또는 불규칙) 경험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X <sup>2</sup>	p-value
전체		212	51.7	-	-
성별	남	141	54.2	1.81	0.18
	여	71	47.3		
연령	29세 이하	63	53.4	5.81	0.21
	30~39세	56	53.3		
	40~49세	51	58.0		
	50~59세	28	45.9		
	60세 이상	14	36.8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18	53.6	2.28	0.52
	비임금근로자	22	51.2		
	실업자	27	56.3		
	비경제활동인구	45	45.5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158	55.4	5.21	0.02
	국내접촉	54	43.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표 4-8〉 자가격리 중 운동량 감소 경험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X <sup>2</sup>	p-value
전체		367	89.5	-	-
성별	남	230	88.5	0.84	0.36
	여	137	91.3		
연령	29세 이하	102	86.4	6.95	0.14
	30~39세	99	94.3		
	40~49세	81	92.1		
	50~59세	54	88.5		
	60세 이상	31	81.6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96	89.1	2.89	0.41
	비임금근로자	39	90.7		
	실업자	46	95.8		
	비경제활동인구	86	86.9		
자가격리 경로	해외입국	259	90.9	1.86	0.17
	국내접촉	108	86.4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제3절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 1. 소득 지원

□ 자가격리로 격리 기간 중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활동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손실분에 대하여 정부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임금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제공하기보다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를 지원함.

- 단, 임금근로자 중 재택근무를 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세대에 의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 생활비를 지원하되,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수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함.
- 가구 규모별 월 단위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음.

〈표 4-9〉 가구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주: 1)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2)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에서 2020. 12. 24. 인출.

- 격리 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됨.
-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 지원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66.4%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득 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때 비수급자는 재택근무를 했거나 소득 지원 신청 전인 자가격리 경험자도 포함됐을 수 있음.
  -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석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수급률이 87.5%로 가장 높고, 다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80.0%),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75.0%), 상용직 임금근로자(74.1%)의 순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급률은 47.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거주지역별로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70.8%가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읍·면지역 거주자의 수급률은 51.7%로 비교적 낮은 편임.

- 소득수준별로는 199만 원 이하 집단의 76.7%가 소득 지원을 받았고, 200만 원~399만 원 집단의 수급률이 59.5%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지원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체
			비수급	수급	
전체		410	33.6	66.4	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83	25.9	74.1	1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26	12.5	87.5	100.0
	일용직 임금근로자	11	40.0	60.0	100.0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20	25.0	75.0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3	20.0	80.0	100.0
	실업자	48	36.4	63.6	100.0
	비경제활동인구	99	52.9	47.1	100.0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48.3	51.7	100.0
	동지역	322	29.2	70.8	100.0
가구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92	23.3	76.7	100.0
	200만 원~399만 원	139	40.5	59.5	100.0
	400만 원~599만 원	86	34.6	65.4	100.0
	600만 원 이상	93	33.3	66.7	100.0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의 충분성에 대하여 '① 매우 부족하다'부터 '④ 매우 충분하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50% 정도가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하다고 보았음.

-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점수는 2.39점, 중간값은 2.5점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충분성 인식은 2.5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실업자의 충분성 인식은 2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 가구소득수준별로는 199만 원 이하 집단의 충분성 인식이 2.07점, 200만 원~399만 원 집단이 2.29점으로 비교적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지원 충분성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체	평균 점수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전체		156	9.8	41.5	40.2	8.5	100.0	2.39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02	7.0	37.2	46.5	9.3	100.0	2.50
	임시직 임금근로자	11	0.0	57.1	28.6	14.3	100.0	2.55
	일용직 임금근로자	4	33.3	66.7	0.0	0.0	100.0	1.50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3	66.7	33.3	0.0	0.0	100.0	1.3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	25.0	50.0	25.0	0.0	100.0	1.80
	실업자	12	14.3	57.1	28.6	0.0	100.0	1.83
	비경제활동인구	19	0.0	33.3	53.3	13.3	100.0	2.58
가구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29	13.6	54.6	22.7	9.1	100.0	2.07
	200만 원~399만 원	52	12.0	40.0	44.0	4.0	100.0	2.29
	400만 원~599만 원	40	5.9	35.3	47.1	11.8	100.0	2.60
	600만 원 이상	35	5.6	33.3	50.0	11.1	100.0	2.57

주: 평균은 '① 매우 부족하다~④ 매우 충분하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임.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자가격리 기간 중 이동이 제한되어 영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3명 중 41.9%가 직원이 근무했다고 응답했음.
- 응답자 중 23.3%가 가족, 친지, 지인이 근무했다고 응답하여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주목할 점은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9%에 달해,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전히 소득원이 상실되었고 대처 방안도 부재하여 경제적 신(新)취약집단이 됨.

〈표 4-12〉 자가격리 중 자영업자 영업체 운영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원이 근무	18	41.9
가족, 친지, 지인이 근무	10	23.3
휴업 또는 폐업	15	34.9
전체	43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2. 생활 지원

### 가. 생필품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에 의하여 자가격리자는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하여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키트를 포함하는 생필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구성과 단가,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조준형, 2020. 9. 4.).

-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예산 소진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생필품, 특히 식료품을 지원받은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9%가 식료품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3.11점, 도움 정도가 3.37점이었음.

○ 식료품을 받지 못한 경우(전체 응답자의 26.1%)는 해외입국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

- 국내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24.6%(70명)가 식료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해외입국자 중에서는 29.6%(37명)가 식료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90.9%가 식료품

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동지역 거주자는 69.3%만이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

○ 읍·면지역 응답자의 만족도는 3.01점, 도움 정도는 3.31점 정도인 데에 비해, 동지역 응답자의 만족도는 3.14점, 도움 정도는 3.39점으로 나타나 식료품의 종류와 질이 지역 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가장 고소득 집단은 식료품 지원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0%가량 낮고, 만족도, 도움 정도도 낮게 평가했음.

〈표 4-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식료품 지원 경험 및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지원 여부				만족도	도움 정도
		빈도			전체		
			지원 받은	지원받 지 못함			
전체		410	73.9	26.1	100.0	3.11	3.37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90.9	9.1	100.0	3.01	3.31
	동지역	322	69.3	30.8	100.0	3.14	3.39
동거인과 자가격리 여부	동거인과 자가격리	143	76.2	23.8	100.0	3.10	3.33
	혼자 자가격리	267	72.7	27.3	100.0	3.11	3.39
가구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92	75.0	25.0	100.0	3.38	3.71
	200만 원~399만 원	139	77.0	23.0	100.0	2.89	3.21
	400만 원~599만 원	86	77.9	22.1	100.0	3.22	3.51
	600만 원 이상	93	64.5	35.5	100.0	3.05	3.12

주: 만족도는 '① 매우 불만족한다~④ 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도움 정도는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④ 매우 도움되었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임. 식료품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질문함. 지원 여부의 통계적 유의도임.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생필품 중 위생키트를 지원받은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0%가 체온계 등 위생키트를 지원받았고, 만족도는 3.31점, 도움 정도는 3.46점으로 식료품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86.4%가 지원받은 반면, 동지역 거주 응답자의 응답률은 79.5%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만족도와 도움 정도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각각 3.41점과 3.50점으로 동지역 거주자 3.28점, 3.45점에 비해 다소 높음.

〈표 4-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위생키트 지원 경험 및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지원 여부				만족도	도움 정도
		빈도			전체		
			지원 받은	지원받 지 못함			
전체		410	81.0	19.0	100.0	3.31	3.46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86.4	13.6	100.0	3.41	3.50
	동지역	322	79.5	20.5	100.0	3.28	3.45
동거인과 자가격리 여부	동거인과 자가격리	143	86.0	14.0	100.0	3.46	3.57
	혼자 자가격리	267	78.3	21.7	100.0	3.22	3.40
가구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92	81.5	18.5	100.0	3.47	3.71
	200만 원~399만 원	139	81.3	18.7	100.0	3.27	3.34
	400만 원~599만 원	86	80.2	19.8	100.0	3.17	3.45
	600만 원 이상	93	80.7	19.4	100.0	3.33	3.43

주: 만족도는 '① 매우 불만족한다~④ 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도움 정도는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④ 매우 도움되었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임. 위생키트를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질문함. 지원 여부의 통계적 유의도임.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나. 실내외 활동 지원

□ 여기에서는 자가격리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되어 격리 장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대처 방안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식사 방법에 주목하였음.

○ 전체 응답자 중 자가격리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식료품을 조리해서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51.2%,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서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41.5%, 지자체에서 지원한 식재료를 조리해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36.3%, 식재료를 온라인 등으로 배달 주문해서 조리해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27.3%임.

- 거주지역별로 지자체 지원 식재료 활용 정도가 달랐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지자체 지원 식재료 활용률(47.7%)이 높았음.
- 동거인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기존 식료품을 조리해 식사하는 비율(60.1%)이 높았고, 혼자 자가격리를 한 경우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여 식사한 비율이 45.3%로 동거인과 자가격리를 한 경우의 34.3%에 비해 다소 높아 동거인 여부가 식사 방법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함.

〈표 4-1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가격리 기간 중 식사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기존 식료품 조리	조리된 음식 배달	지자체 지원 식재료	식재료 주문해서 조리
전체		410	51.2	41.5	36.3	2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83	50.3	47.5	40.4	30.1
	임시직 임금근로자	26	50.0	38.5	46.2	19.2
	일용직 임금근로자	11	72.7	27.3	45.5	18.2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20	55.0	30.0	35.0	3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3	69.6	26.1	21.7	21.7
	실업자	48	39.6	37.5	37.5	25.0
	비경제활동인구	99	51.5	40.4	28.3	27.3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60.2	35.2	47.7**	23.9
	동지역	322	48.8	43.2	33.2	28.3
동거인과 자가격리 여부	동거인과 자가격리	143	60.1***	34.3**	35.0	32.2
	혼자 자가격리	267	46.4	45.3	37.1	24.7

주: 중복응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개별 행에 제시된 각 항목의 합이 100.0을 이루지 않으며, 제시된 각 식사 방법을 활용한 경험 유무의 개별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전체 응답률의 비중을 따라 내림차순 정렬함.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해당 식사 방법을 이용한 경우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단의 통계량에 표시함.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쓰레기 배출이나 문서 발급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대처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낮았음.

○ 한편,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함.

○ 거주지역에 따라 읍·면지역 거주자의 42.1%가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동지역 거주자의 응답률인 35.4%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동지역 거주자는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전화 등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른 사적 네트워크 활용도의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수준별로는 6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비교적 높음. 반면, 199만 원 이하 및

200만 원~399만 원 집단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각각 28.3%와 33.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사적 네트워크 활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 대처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체
			주변 지인	전화 등 온라인	담당 공무원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않음	기타	
전체		410	36.8	20.7	3.7	26.8	12.0	100.0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42.1	18.2	2.3	25.0	12.5	100.0
	동지역	322	35.4	21.4	4.0	27.3	11.8	100.0
가구소득수준	199만 원 이하	92	33.7	22.8	5.4	28.3	9.8	100.0
	200만 원~399만 원	139	37.4	16.6	2.9	33.8	9.4	100.0
	400만 원~599만 원	86	29.1	26.7	2.3	24.4	17.4	100.0
	600만 원 이상	93	46.2	19.4	4.3	17.2	12.9	100.0

주: 외출이 필요할 때 제시된 형태의 도움을 받은 경험 유무의 개별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3. 돌봄 지원

□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적 조치로 대인 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이동을 제한했는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대처이지만 직접 접촉이 필수적인 돌봄이 필요한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이한나 외, 2020).

○ 여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현황 및 자가격리 기간 중 대처 방안, 그리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현황과 대처 방안을 살펴봄.

#### 가. 가구원 돌봄

□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4.2%가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다고 했음.

-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 거주자에 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가구원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4-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음							
			미취학 아동	학령기 자녀	장애인	질환자	고령자	기타	
전체	58	14.2	5.6	5.9	1.7	1.2	2.0	1.5	
거주지역	읍·면지역	14	15.9	6.8	5.7	2.3	0.0	4.6**	0.0
	동지역	44	13.7	5.3	5.9	1.6	1.6	1.2	1.9
동거인과 자가격리 여부	동거인과 자가격리	23	16.1	5.6	6.3	2.8	1.4	1.4	1.4
	혼자 자가격리	35	13.1	5.6	5.6	1.1	1.1	2.3	2.3

주: 중복응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개별 행에 제시된 각 항목의 합이 100.0을 이루지 않으며, 전체 응답자 중 해당하는 특성의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있음”은 한 명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해당 유형이 있는 경우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단의 통계량에 표시함.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돌봄 방식을 살펴본 결과,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거 가족이나 자가격리자 본인이 돌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0%를 차지함.

- 해당 가구원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 친지, 지인이 돌보았다는 경우가 전체의 43.1%로 나타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자가격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맥락에서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률은 6.9%에 그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없음.

〈표 4-18〉 자가격리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돌봄 방식

(단위: 명, %)

방식	빈도	비율
해당 가구원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거 가족이나 내가 돌봄	29	50.0
해당 가구원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 친지, 지인이 돌봄	25	43.1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4	6.9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0	0.0
기타	0	0.0
전체	58	100.0

주: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나. 본인 돌봄

-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 정도로 낮은 수준이나,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포함된 비율로 본인 돌봄 수요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표 4-19〉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여부

(단위: 명, %)

방식	빈도	비율
필요하지 않다	394	96.1
필요하다	16	3.9
전체	410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75%가 다른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유효응답은 없어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것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18.8%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임.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이동과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해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했다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음.

〈표 4-20〉 자가격리 기간 중 본인 돌봄 방식

(단위: 명, %)

방식	빈도	비율
다른 동거 가족의 도움	12	75.0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0	0.0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0	0.0
기타	1	6.3
도움을 받지 못함	3	18.8
전체	16	100.0

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제4절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1. 자가격리 관련 정보 제공

#### □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

-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전체 응답자의 62.7%인 257명이 '해외입국에 따른 대상자 사전 인지'라고 응답하였음. 보건소·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통보(17.6%), 지인·회사의 연락(9.5%) 등 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서의 외부 통보는 27.1%인 111명으로 조사됨.

-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사전에 인지한 비율은 72.0%에 해당됨.

- 자가격리 원인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인 경우 '보건소·지자체 통보'에 따른 인지가 57.6%로 가장 높았으나, 스스로 인지하였거나 지인·회사 등을 통한 인지가 38.4%로 나타나, 그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표 4-21〉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

(단위: 명, %)

	전체	스스로 인지	지인 또는 회사 연락	보건소·지자체 통보	해외입국자 인지	기타
전체	410(100.0)	38(9.3)	39(9.5)	72(17.6)	257(62.7)	4(1.0)
성별***						
여성	150	5.3	15.3	21.3	56.7	1.3
남성	260	11.5	6.2	15.4	66.2	0.8
연령						
29세 이하	118	10.2	12.7	20.3	54.2	2.5
30~39세	105	11.4	12.4	17.1	58.1	1.0
40~49세	88	9.1	4.5	12.5	73.9	-
50~59세	61	9.8	6.6	18.0	65.6	-
60세 이상	38	-	7.9	21.1	71.1	-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9.5	0.7	-	89.8	-
국내접촉	125	8.8	29.6	57.6	0.8	3.2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스스로 인지한 경우와 지인·회사의 연락으로 인지한 경우, 인지 후 보건소의 공식적 통보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해외입국자 제외).

- 인지 후 1일 이내 통보 비율이 81.6%에 달하나, 13.2%는 5일 이상 소요됨 (2~3일 소요 비율 5.4%).
- 인지 후 보건소로부터 통지받기 이전에 대면활동(가족·지인·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응답 역시 56.4%로 조사되어, 접촉시점과 방역망 포착시점 사이에 방역의 사각지대가 위치할 가능성이 감지됨.
  - 자가격리제도의 취지(감염 가능성 차단) 달성을 위해서는 격리 대상자 본인 및 방역당국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개인 차원에서는 본인의 격리 대상자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최단 기간 내에 방역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방역당국 차원에서는 격리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과 소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반면,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검역절차, 지자체의 대상자 파악 등이 작동하므로 자가격리 인지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자가격리 생활수칙 인지 경로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0.5%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을 알고 있었음.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알게 된 경로는 ‘보건소 또는 담당 공무원 안내 (72.9%)’, ‘자가격리 시 받은 안내문(66.3%)’ 등 공식적인 통보경로가 주를 이루었음(중복응답 인정).
  - 지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습득 등 생활수칙 인지에 있어서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138명(33.7%)으로 나타났음.
  - 해외입국자의 경우 본인의 노력이 있었던 비율(37.9%)이 국내접촉자(24.0%)에 비해 높았음.
- ‘본인의 노력’으로 생활수칙을 알았다는 응답자(138명) 중 33명(8.0%)은 공식적인 통보경로 없이 순수하게 지인으로부터 들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이들의 구성에서 남성(24명), 30대 이하(16명), 동지역 거주(30명), 해외입국(29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22〉 자가격리 생활수칙 인지 경로

(단위: 명, %)

	전체	보건소 또는 담당 공무원 안내	자가격리 안내문	본인 노력	생활수칙을 모름	기타
전체 <sup>1)</sup>	410	299(72.9)	272(66.3)	138(33.7)	2(0.5)	5(1.2)
성별						
여성	150	75.3	65.3	38.0	-	1.3
남성	260	71.5	66.9	31.2	0.8	1.2
연령						
29세 이하	118	85.6	69.5	33.9	1.7	0.8
30~39세	105	61.9	68.6	41.0	-	2.9
40~49세	88	67.0	69.3	34.1	-	-
50~59세	61	72.1	59.0	31.1	-	1.6
60세 이상	38	78.9	55.3	15.8	-	-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70.2	66.7	37.9	0.4	1.8
국내접촉	125	79.2	65.6	24.0	0.8	-

주: 1) 중복응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이 100.0을 이루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자와 동거 가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안내를 확대함으로써 자가격리에 대한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자가격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등 외부인 방문·대면접촉 금지, 동거 가족과의 독립생활 영위 등은 국민적 이해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
- 기존에 제공되는 생활수칙 이외의 정보와 grey zone에 속하는 사례 등은 신뢰도 높은 정보원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경우 자가격리제도 운영 취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2.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 □ 전담 공무원 배정 및 역할 구분

-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중심 관리 체계로 조정하고(2월 9일),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조치함(관계부처합동, 2020).
- 전담 부서는 자가격리자 1:1 담당자를 지정, 모니터링 등 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부서는 자가격리자가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에 대한 안내 및 격리자 지정·해제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기술 지원을 담당함.

〈표 4-23〉 자가격리자 전담 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구분	담당 사무
전담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자 1:1 전담 공무원 지정</li> <li>▶ 모니터링 실시 요령에 따라 일일 2회 이상 실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관리)</li> <li>▶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시 격리병원 이송 및 검사</li> </ul> </li> <li>▶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li> <li>▶ 연락 두절 등 무단이탈 시 보건직원, 경찰서 등 공조 대응</li> </ul>
보건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접촉자관리대책(민간자원, 비상자원, 격리시설 등) 수립</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li> <li>▶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 사항: 자가격리 대상·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과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설명</li> </ul> </li> <li>▶ 코로나19 임상 증상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li> </ul>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a).

- 본 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자가격리 중에 ‘전담 공무원’이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나, 전담 공무원 지정 사실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잘 전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의 소통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통한 공무원의 수는 ‘한 명’인 경우가 64.4%(264명), ‘여러 명’인 경우가 35.6%(146명)로 나타났음(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제외).
- 60세 이상의 고연령층과 동지역(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소통한 공무원의 수가 2명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복수의 공무원과 소통 경험에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여러 명의 공무원보다 한 명의 공무원과의 소통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았음.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한 명과 연락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6.2%, ‘여러 담당자가 업무별로 연락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9%였고, 잘 모르거나 기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10.9%였음.

〈표 4-24〉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통한 공무원 수

(단위: 명, %)

	전체	한 명	여러 명
전체	410(100.0)	264(64.4)	146(35.6)
성별			
여성	150	61.3	38.7
남성	260	66.2	33.8
연령			
29세 이하	118	64.4	35.6
30~39세	105	64.8	35.2
40~49세	88	68.2	31.8
50~59세	61	65.6	34.4
60세 이상	38	52.6	47.4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75.0	25.0
동지역	322	61.5	38.5

주: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자가격리 기간 중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78.5%),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의사소통 가능(76.1%)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높음.
- 소통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낮았으나(64.1%), 역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임.

〈표 4-25〉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응답 비율

(단위: 명, %)

	전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 소통	필요한 경우 오래 기다리지 않음	준수사항 등 충실한 설명	요구사항의 적극적 해결 노력
전체	410	263(64.1)	312(76.1)	322(78.5)	295(71.9)
성별					
여성	150	63.3	79.3	77.3	76.0
남성	260	64.6	74.2	79.2	69.6
연령					
29세 이하	118	66.1	79.7	79.7	75.4
30~39세	105	57.1	70.5	69.5	67.6
40~49세	88	60.2	71.6	78.4	65.9
50~59세	61	72.1	82.0	85.2	78.7
60세 이상	38	73.7	81.6	89.5	76.3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67.1	78.4	77.3	75.0
동지역	322	63.3	75.5	78.9	71.1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64.2	78.3	80.7	72.3
국내접촉	125	64.0	71.2	73.6	71.2

주: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의사소통 과정 중의 불쾌감 경험

○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0%인 45명이었음.

- 성별, 거주지역, 자가격리 원인 등 요인에 따라 불쾌감 경험률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서는 30대와 50대에서 불쾌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높은 불쾌감’은 자가격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불안정(자가격리자), 방역 업무와 다수 격리자 모니터링에 따른 압박감(전담 공무원)이 약 2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위험신호라 할 수 있음.
- 적어도 본 조사에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상호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는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불안과 전담 공무원의 소진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4-26〉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 중 불쾌감 경험

(단위: 명, %)

	전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410(100.0)	45(11.0)	365(89.0)
성별			
여성	150	13.3	9.6
남성	260	86.7	90.4
연령**			
29세 이하	118	6.8	93.2
30~39세	105	17.1	82.9
40~49세	88	8.0	92.0
50~59세	61	16.4	83.6
60세 이상	38	5.3	94.7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8.0	92.0
동지역	322	11.8	88.2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11.6	88.4
국내접촉	125	9.6	90.4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불쾌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이해를 구하기보다 지시, 명령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37.5%)’한 것이었으며, ‘불친절한 언행이나 짜증화를 내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23.2%)’한 경우도 지적되었음.
- 기타 응답 중에는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기관 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 업무 지체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음.

- 늦은 시간 연락이나 위치확인시스템(GPS)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음.

- 불쾌한 경험을 겪었을 때 대처한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고, ‘항의(전담 공무원 또는 상급 기관)’라는 실제적 대처수단을 활용한 경우는 24.4%였음.

#### □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소결

- 자가격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가격리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한 취지는 첫째, ‘전담’의 형식으로 자가격리자와 일상적·지속적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요구 대응 체계를 갖추고, 둘째, 자가격리제도상의 관리기제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 본 조사결과에 국한된 점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가격리자와 안정적인 소통체계를 갖춘 취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전담 공무원 지정에 대해 대부분(85.1%)의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소통 상황으로 평가한 ‘전담 공무원과의 전반적 소통 만족도’에 대해서도 74.6%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하기는 어려우나, 약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할 때,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가 11.0% 수준에 머무른 점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지점으로 사료됨.

〈표 4-27〉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전체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410	16(3.9)	28(6.8)	60(14.6)	76(18.5)	230(56.1)
성별						
여성	150	2.7	9.3	13.3	12.7	62.0
남성	260	4.6	5.4	15.4	21.9	52.7
연령						
29세 이하	118	2.5	5.9	14.4	16.1	61.0
30~39세	105	5.7	11.4	12.4	21.0	49.5
40~49세	88	3.4	5.7	21.6	18.2	51.1
50~59세	61	4.9	3.3	11.5	18.0	62.3
60세 이상	38	2.6	5.3	10.5	21.1	60.5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4.5	5.7	11.4	18.2	60.2
동지역	322	3.7	7.1	15.5	18.6	55.0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4.2	7.0	14.0	18.9	55.8
국내접촉	125	3.2	6.4	16.0	17.6	56.8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3. 자가격리 준수사항

#### □ 주요 자가격리 준수사항 실천 정도

##### ○ 외부인 또는 비동거 가족과의 '대면' 경험

-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인(예: 택배 기사) 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 '대면'한 경험은 89.5%의 응답자들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면접촉이 있었다는 응답은 10.5%(43명)였음.
- 자가격리 경로 측면에서 해외입국으로 인한 경우(12.6%)가 국내접촉으로 인한 경우(5.6%)보다 대면접촉이 유의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 자가격리 중 외부 외출 경험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외부에 외출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4.6%인 19명으로 조사되었음.
- 외출 사유(중복응답 허용)로 조사된 26건 중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16건이었음.<sup>13)</sup> 생필품 구입이나 쓰레기 배출, 기분 전환 차원의 외

출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6건으로 조사되었음.

-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외출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 후 동반 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의료서비스 이외의 외출은 사전 연락 없는 임의적인 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1일 2회 증상 입력

- 오전, 오후 두 차례 이상 증상을 입력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은 92.2%의 응답자(378명)가 빠짐없이 실천하였고, 누락 경험에 있었던 비율은 7.8%임.
- 증상 입력을 누락한 경우(32명), 29명의 응답자들은 전담 공무원에게 입력 누락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입력 누락과 전담 공무원 미통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3명(0.7%)이었음.

○ 쓰레기 배출

- 자가격리 기간 중의 쓰레기 배출 방법(중복응답 허용)으로 응답된 총 433건 가운데 '집 안에 보관했다가 격리가 해제된 후 배출'했다는 응답이 348건(84.9%)으로 가장 많았음.
- 자가격리 중에 집 밖에 둔 쓰레기를 가족이나 지인이 가져가서 배출한 경우는 44건(10.2%),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배출한 경우는 23건(5.3%)이었고, 본인이 잠시 외출해서 분리수거·배출한 사례는 6건으로 보고되었음.

○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켜야 할 수칙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이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수율의 편차가 관측됨.

- 사전 협의 없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 금지, 증상 입력 등의 준수율은 높은 반면, '대면' 접촉 금지와 개별적 폐기물 배출 자제 등은 상대적으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폐기물 배출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집 안 보관이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중 밀폐 후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의 별도 수거 후 소각 처리' 등 후속 처리에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

---

13) 기타 4건 역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외출이었음.

으로 여겨짐.

- 코로나19 이전에 영위하던 일상과 달라진 격리 수칙에 대해서는 사례 중심의 세밀한 안내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택배 활용 시 택배 기사와의 대면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함(문 앞 보관→비대면 수령).
- 해외입국자의 경우 귀국 후 국내 네트워크 복구 및 생활환경 적응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접촉과 쓰레기 배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련 수칙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함.

〈표 4-28〉 주요 자가격리 준수사항 실천율

(단위: 명, %)

	전체	대면접촉 금지	사전 연락 없는 외출 금지	1일 2회 증상 입력	쓰레기 배출(보관 후 격리 해제시 배출)
전체	410	367(89.5)	391(95.4)	378(92.2)	348(84.9)
성별					
여성	150	93.3	97.3	92.0	82.5
남성	260	87.3	94.2	92.3	79.1
연령					
29세 이하	118	89.0	96.2	86.4	84.0
30~39세	105	90.5	95.2	92.4	77.5
40~49세	88	89.8	93.2	95.5	81.7
50~59세	61	86.9	95.1	96.7	75.8
60세 이상	38	92.1	97.4	94.7	81.0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89.8	95.5	96.6	83.7
동지역	322	89.4	95.3	91.0	79.5
자가격리 원인** <sup>1)2)</sup>					
해외입국	285	87.4	95.4	91.9	77.3
국내접촉	125	94.4	95.2	92.8	87.6

주: 1) \*\* p<.05 \*\*\* p<.01

2) 자가격리 원인은 '대면접촉 금지'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의 의무 설치와 활용 불편도

- 자가격리자들이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활용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3.4%(96명)였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불편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성  
에 비해 여성들이, 30대 이하의 연령층,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등에서  
안전보호앱 등의 불편함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불편사항(중복응답 허용)
  - 안전보호앱 등의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은 총 108건이 제기되었  
음. 보기로 제시된 응답 가운데는 ‘입력이 잘 안되거나 화면이 넘어가지 않  
는 등 작동 불안정(21건)’, ‘휴대전화가 없거나 와이파이 등이 없는 환경에  
서 앱 미작동(13건)’의 빈도가 높았음.
  - 기타 의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함은 위치확인시스템(GPS)의 오류로  
30건 이상의 의견을 해당 불편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탈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오류임.
  - 그 외 휴대전화 운영 체제(OS)와 앱 시스템의 충돌 등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잠을 자거나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탈 알림이 오는 등  
적절하지 못한 경고 등도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임.
- 자가격리제도 시행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보호앱의 안정화와 지속적  
인 업데이트가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스템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오류(격리 준수와 이탈 경고 불일치)에 대한  
기술적 개선
  -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완하되,  
필요한 정보는 이용 경험자들로부터 별도로 수집

〈표 4-2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 활용의 불편함

(단위: 명, %)

	전체	불편함 있음	불편함 없음
전체	410(100.0)	96(23.4)	314(76.6)
성별			
여성	150	28.7	71.3
남성	260	20.4	79.6
연령			
29세 이하	118	26.3	73.7
30~39세	105	31.4	68.6
40~49세	88	17.0	83.0
50~59세	61	19.7	80.3
60세 이상	38	13.2	86.8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22.7	77.3
동지역	322	23.6	76.4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24.9	75.1
국내접촉	125	20.0	80.0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에 대한 완화 또는 강화 의견

- 자가격리는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상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구성요소들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통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적절한 완화 또는 강화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자가격리제도 중 ① 현재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② 비동거 가족이나 지인 방문 금지, ③ 1일 2회 입력 신고, ④ 위치정보를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 ⑤ 자가 내에서 동거 가족과의 격리 노력, ⑥ 안전보호앱 의무 설치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완화 또는 강화 필요성을 조사하였음.
- 자가격리 기간
  -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 정오까지 격리함.
  -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36.9%의 응답자들이 완화, 24.1%의 응답자들이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여 기간 단축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자가격리 원인이 해외입국일수록 자가격리 기간 완화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지원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격리에 따른 불편함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4-30〉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격리 기간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106(25.9)	45(11.0)	160(39.0)	42(10.2)	57(13.9)
성별						
여성	150	28.0	12.0	36.0	12.0	12.0
남성	260	24.6	10.4	40.8	9.2	15.0
연령**						
29세 이하	118	18.6	11.9	49.2	11.9	8.5
30~39세	105	22.9	10.5	41.9	7.6	17.1
40~49세	88	29.5	6.8	33.0	9.1	21.6
50~59세	61	39.3	9.8	27.9	11.5	11.5
60세 이상	38	26.3	21.1	31.6	13.2	7.9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19.3	13.6	42.0	9.1	15.9
동지역	322	27.6	10.2	38.2	10.6	13.4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31.9	10.9	38.6	5.3	13.3
국내접촉	125	12.0	11.2	40.0	21.6	15.2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비동거 가족이나 지인 방문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는 비동거 가족이나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며,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연락 후에 방문이 가능함.
- 비동거 가족이나 외부인 방문 금지 수칙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대폭적인 강화 의견이 43.7%를 차지하는 등 53.9%의 응답자들이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음.
-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60세 이상 고령자, 해외입국에 따른 격리자보다 국내접촉에 따른 격리자들이 대면접촉 제한 조치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표 4-31〉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비동거 가족 또는 지인의 방문 금지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38(9.3)	34(8.3)	117(28.5)	42(10.2)	179(43.7)
성별**						
여성	150	6.0	6.7	24.7	9.3	53.3
남성	260	11.2	9.2	30.8	10.8	38.1
연령**						
29세 이하	118	5.9	7.6	43.2	10.2	33.1
30~39세	105	12.4	5.7	21.0	9.5	51.4
40~49세	88	8.0	8.0	22.7	12.5	48.9
50~59세	61	13.1	9.8	31.1	8.2	37.7
60세 이상	38	7.9	15.8	13.2	10.5	52.6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5.7	10.2	29.5	4.5	50.0
동지역	322	10.2	7.8	28.3	11.8	41.9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10.5	10.2	30.2	10.5	38.6
국내접촉	125	6.4	4.0	24.8	9.6	55.2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1일 2회 입력 신고(능동감시)

- 자가격리자들에게는 발열 등의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여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준수사항이 주어지며, 모니터링 담당자 역시 1일 1회 유선으로 격리 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1일 2회 이상 상황 신고에 대해 본 조사 대상인 자가격리자들은 대부분 현재 수준이 적절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60세 이상 고령의 자가격리자들이 1일 2회 입력 신고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표 4-32〉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1일 2회 입력 신고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56(13.7)	31(7.6)	182(44.4)	44(10.7)	97(23.7)
성별						
여성	150	12.0	6.7	48.7	12.0	20.7
남성	260	14.6	8.1	41.9	10.0	25.4
연령***						
29세 이하	118	13.6	11.0	49.2	14.4	11.9
30~39세	105	19.0	3.8	48.6	3.8	24.8
40~49세	88	6.8	8.0	43.2	13.6	28.4
50~59세	61	13.1	8.2	37.7	14.8	26.2
60세 이상	38	15.8	5.3	31.6	5.3	42.1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11.4	6.8	48.9	8.0	25.0
동지역	322	14.3	7.8	43.2	11.5	23.3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15.1	8.1	46.0	9.5	21.4
국내접촉	125	10.4	6.4	40.8	13.6	28.8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

- 휴대전화 및 탑재된 안전보호앱은 자가격리자의 격리 장소 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에 활용되며,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격리 조치가 가능함.
- 격리 장소 이탈 방지는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본 조사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 대한 동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은 격리 장소 이탈 방지 조치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체류지 이탈 방지 등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예외적인 이동권 제한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치확인시스템(GPS) 작동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표 4-33〉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27(6.9)	16(3.9)	105(25.6)	52(12.7)	210(51.2)
성별						
여성	150	4.7	2.7	28.7	12.0	52.0
남성	260	7.7	4.6	23.8	13.1	50.8
연령						
29세 이하	118	5.1	4.2	32.2	14.4	44.1
30~39세	105	5.7	1.9	33.3	7.6	51.4
40~49세	88	5.7	3.4	18.2	14.8	58.0
50~59세	61	9.8	4.9	19.7	13.1	52.5
60세 이상	38	10.5	7.9	10.5	15.8	55.3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6.8	3.4	28.4	8.0	53.4
동지역	322	6.5	4.0	24.8	14.0	50.6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7.4	4.9	27.7	11.2	48.8
국내접촉	125	4.8	1.6	20.8	16.0	56.8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자가 내에서 동거 가족과의 격리 노력

- 자가격리가 가족 등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인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원칙임.
- 식사를 혼자서 하거나 화장실·세면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며, 가족 간 마스크 사용은 물론, 대화 등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임.
- 자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거 가족과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0.3%)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4-34〉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 내에서 동거 가족과의 격리 노력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40(9.8)	34(8.3)	130(31.7)	54(13.2)	152(37.1)
성별						
여성	150	7.3	6.7	31.3	19.3	35.3
남성	260	11.2	9.2	31.9	9.6	38.1
연령**						
29세이하	118	8.5	8.5	39.8	16.1	27.1
30~39세	105	7.6	3.8	36.2	8.6	43.8
40~49세	88	9.1	8.0	28.4	11.4	43.2
50~59세	61	14.8	13.1	19.7	19.7	32.8
60세이상	38	13.2	13.2	21.1	10.5	42.1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8.0	9.1	31.8	11.4	39.8
동지역	322	10.2	8.1	31.7	13.7	36.3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10.5	8.8	30.2	11.9	38.6
국내접촉	125	8.0	7.2	35.2	16.0	33.6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 설치

- 자가격리자의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0.0%에 이르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자가격리 원인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안전보호앱을 통한 자가격리 관리에 동의하고 있음.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앱 이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한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응답자의 23.4%가 앱 활용의 불편함 지적)을 고려할 때, 설치 의무에 따른 내실 있는 정보 제공과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 4-35〉 자가격리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

(단위: 명, %)

	전체	대폭 완화	완화	보통	강화	대폭 강화
전체	410	17(4.1)	6(1.5)	100(24.4)	51(12.4)	236(57.6)
성별						
여성	150	2.7	1.3	22.7	12.7	60.7
남성	260	5.0	1.5	25.4	12.3	55.8
연령						
29세 이하	118	4.2	0.8	27.1	12.7	55.1
30~39세	105	3.8	1.9	27.6	12.4	54.3
40~49세	88	3.4	1.1	19.3	9.1	67.0
50~59세	61	6.6	1.6	24.6	16.4	50.8
60세 이상	38	2.6	2.6	18.4	13.2	63.2
거주지역						
읍·면지역	88	5.7	2.3	23.9	9.1	59.1
동지역	322	3.7	1.2	24.5	13.4	57.1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4.6	1.4	24.6	12.3	57.2
국내접촉	125	3.2	1.6	24.0	12.8	58.4

주: \*\* p&lt;.05 \*\*\* p&lt;.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4. 기타: 자가격리 중의 코로나19 검사와 동반 격리 여부

##### □ 자가격리 중의 코로나19 검사

○ 자가격리 직전 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6.1%인 394명이었으며, 16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을 경우 조사 응답자들은 총 59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가운데 자가격리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경우가 267회(67.8%)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해제 직전은 188회(47.7%), 자가격리 시작 직후는 131회(33.2%)였음.
- 해외입국자는 국내접촉인 경우에 비해 코로나19 검사 경험률이 높았음. 이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a).

- 두 차례 이상 검사를 받은 경우는 194명으로, 자가격리를 전후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49.2%에 해당함.

○ 응답자의 기억 오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부 자가격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외입국자 및 국내접촉자 모두 감염 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검사 횟수와 시점 역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시작하는 시기와 해제하는 시기의 2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 시는 즉시 검사).
- 다만 해외입국자의 경우 출발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증명한다면 자가격리 해제 직전 1회 검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4-36〉 자가격리 중의 코로나19 검사 시점

(단위: 명, 회, %)

	전체	자가격리 시작 직전	자가격리 시작 직후	자가격리 기간 중간	자가격리 해제 직전
전체 <sup>1)</sup>	410	267(67.8)	131(33.2)	7(1.8)	188(47.7)
성별					
여성	150	66.4	36.3	2.7	51.4
남성	260	68.5	31.5	1.2	45.6
연령					
29세 이하	118	68.5	29.9	1.7	51.3
30~39세	105	69.2	35.6	2.0	46.5
40~49세	88	65.3	35.7	1.2	42.9
50~59세	61	66.7	24.6	1.8	45.6
60세 이상	38	75.4	45.7	2.9	54.3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83.3	16.7	16.7	66.7
국내접촉	125	67.3	33.8	1.3	47.1

주: 1) 중복응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이 100.0을 이루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 가족 등 동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수칙

○ 감염 위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단독 자가격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이 미 동거 가족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 격리가 불가피하므로 가

족 또는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이 제정되어 있음.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원칙, 많은 사람과 접촉 금지, 집단시설 종사자일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업무 제한 권고 등의 차이점이 있음.

○ 본 조사 응답자 중 단독 자가격리자의 비율은 65.1%(410명)였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된 비율은 34.9%(143명)였음.

- 혼자서 자가격리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55.3%)보다 남성(70.8%), 국내접촉자(54.4%)보다 해외입국자(69.8%)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표 4-37〉 단독 또는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경험한 경우

(단위: 명, %)

	전체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	혼자서 자가격리
전체	410(100.0)	143(34.9)	410(65.1)
성별***			
여성	150	44.7	55.3
남성	260	29.2	70.8
연령			
29세 이하	118	35.6	64.4
30~39세	105	27.6	72.4
40~49세	88	30.7	69.3
50~59세	61	44.3	55.7
60세 이상	38	47.4	52.6
자가격리 원인***			
해외입국	285	30.2	69.8
국내접촉	125	45.6	54.4

주: \*\* p<.05 \*\*\* p<.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의 생활 등의 준수가 요구됨. 이와 같은 준수사항이 충실하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자가격리 중에 잘 준수되었는지를 조사하였음.

-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경험한 응답자들 중 72.0%는 생활수칙 안내가 충실했다고 평가하였음.
- 동거 가족과의 생활 분리 등 자가격리 생활수칙이 잘 준수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64.4%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 자가격리 중에 가족과의 엄격한 독립생활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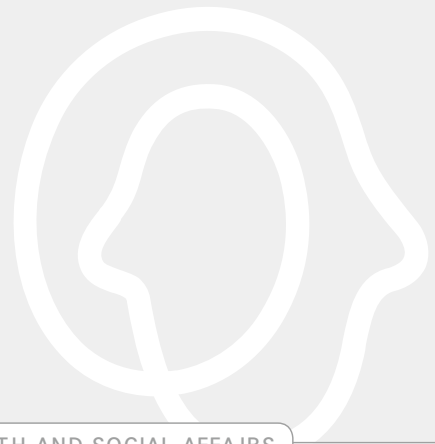
- 특히 고령자나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시 접촉 최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함.

〈표 4-38〉 동반 자가격리 경험에 대한 의견

(단위: %)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 충실도	3.5	4.2	20.3	20.3	51.7
가족과의 생활 분리 준수 정도	6.3	9.1	20.3	22.4	42.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임.



## 제5장

### 결론

제1절 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2절 복지 지원 개선 방안

제3절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 제 5 장      결론

### 제1절 건강 관리 지원 방안

#### 1. 주요 결과 요약

##### □ 기저질환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는 시급성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병원 진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가격리자의 기저질환 관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지침에서 제시한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자가격리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특히 자가격리자 폭증으로 담당 공무원이 여러 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외출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동반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따를 수 있음.
- 조사에 응답한 자가격리 경험자 중 12%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기저질환자였고, 이들 중 42.9%가 자가격리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지 못했음.
  - 지침에 따르면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지만, 기저질환자의 32.1%가 복용약을 추가로 처방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자가격리 이후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경우는 10%가량이었음.

## □ 정신건강 관리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충격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함.
- 이에 대응하고자 국가는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본 조사 결과,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3.9%였고, 이러한 경험은 성, 연령, 경제활동 상태, 자가격리 경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 국내접촉자는 해외입국자에 비해 자가격리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전적 준비나 제도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이었음. 여성이나 고령자는 정신건강에서 취약한 집단이지만, 자가격리 중 정신적 어려움은 특정 집단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음.
- 응답자의 21.5%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이 경우가 자가격리 중에 발생한 정신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인지, 또는 자가격리 종료 후에 시작된 것인지 구분되지는 않음.
  - 인터뷰에 따르면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 지인의 만남, 일상생활 등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자가격리 기간 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 참여자 중 45.1%가 이러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시점은 응답자의 다수(88.6%)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고, 응답자의 30.3%는 자가격리 종료 후 일정 기간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했음.

## □ 생활습관 관리

-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에 변화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인터뷰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89.5%가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감소했음.

## 2. 개선 방안

###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 및 기준 검토

- 국내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정
  - 지침 제9-2판(20.8.20)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현재 해외 입국자, 그리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지침 제9-3판(20.11.10)에서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하고,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지만 그 외 신고체계를 통해 추가되도록 하는 등으로 조정
- 국가별로 자가격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측면,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대상자와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
  - 스웨덴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자택이 아닌 시설격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환자의 접촉자뿐 아니라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포함해 강도 높게 관리
  - 독일은 자가격리 중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가능
  - 미국은 확진자의 재택 요양 및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간병인, 가족에 대한 지침 상세 제공

□ 기저질환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 보완

○ 자가격리자의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에 대한 지침에 비해 자가격리 현장에서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 발생

- 자가격리자와 직접 소통하는 인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 발생
- 자가격리자 외출 시 담당 공무원 동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가격리자 폭증 시 긴급 조치 불가
-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 방문이 통제될 가능성 존재

○ 자가격리자 의료서비스 이용 기준 재고

- 병원진료, 치료 요구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을 보완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해 자가격리 기간 중 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세계보건기구는 격리 대상자가 의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임산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전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자가격리 기간 중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 지원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대리 처방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지침 수행을 독려해, 자가격리 중 병원진료,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상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 완화

○ 자가격리자 대상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자가격리자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고 지원
- 자가격리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 야간 및 휴일 대응 체계 강화

○ 담당 공무원의 야근, 초과근무 등 총력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야간, 휴일 중 대응에 차질 발생

-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대응이 원칙이나, 자가격리자 증가로 1명의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상황 초래
-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및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즉각적인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지인 등과의 접촉 가능성
- 자가격리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기저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시 지침에 따른 외출의 전(全) 과정 동행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한계

○ 야간, 휴일 중 긴급 의료서비스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공무원 추가 지정

- 야간, 휴일 중 전담 공무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고려
- 자가격리자는 야간, 휴일 중에는 연락 가능한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받도록 하고, 일차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과의 소통이 어려울 시 추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
- 야간, 휴일 중 자가격리자의 민원은 긴급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제한해, 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소진 예방

##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자가격리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 발생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일상 및 여가 생활 통제에 따른 사회적 단절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 호소
- 자가격리 종료 이후에도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 등 정신적 문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

○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화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 기간 중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있

으나, 자가격리 경험자들은 전화상담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이후 자가격리자가 필요시 도움을 받는 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자가격리 시작 시점에 전체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일괄 제공
  -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격리통지서, 생활용품 지원 시 문서로 전달하는 방안 고려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전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기저질환자, 고령자, 자가격리 중 가족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 자가격리자 특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시기, 내용, 전달해야 하는 정보 등 서비스 체계화
  - 자가격리 초기에 국내접촉자는 자가격리 방법과 상황에 대한 혼란과 충격으로 전담 공무원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발생
  -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비교적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 초기에는 심리적 안정 유지

#### ○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 필요

- 자가격리는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예방적 조치로, 대상자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와 협조가 중요
- 자가격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생활습관 관리로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유지 도모

-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생활습관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 상의 문제 야기

- 자가격리 중 배달 음식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영양 불균형 발생
- 실내에 머물며 운동량이 줄고, 일상적 활동이 제한돼 에너지 소모 감소
- 이와 함께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자가격리자로서의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정신적으로 위축

### ○ 자가격리 중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생활습관 유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건강한 식단 유지, 실내 운동,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독려할 수 있는 캠페인 운영, 정보 제공
  - 코로나19 격려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개발해, 유명인을 참여시켜 홍보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래 보급을 위한 경연 대회를 개최하기도 함(신동훈, 2020. 9. 22.).
  - 중구보건소는 마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대학의 다문화융합연구소 인문융합치료센터와 협업해 기존의 상담 위주의 심리 지원을 넘어서 이야기, 미술, 음악, 문학 등 전문적 인문 융합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음(차영환, 2020. 12. 7.).
  - 인천시는 ‘코로나19, 힘내라 인천시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작하고, 라이브 음악방송을 개설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집콕 문화생활로 이겨 내요!’ 캠페인을 운영함(우상규, 2020. 4. 20.).

## 제2절 복지 지원 개선 방안

### 1. 주요 결과 요약

#### □ 소득 지원

- 전체 응답자 중 66.4%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득 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았음. 비수급자는 재택근무를 했거나 소득 지원 신청

전인 자가격리 경험자를 포함할 수 있음.

-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약 50% 정도만 지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보았음.
  - 종사상 지위별로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실업자 집단은 지원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낮았음.
- 자가격리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로,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전히 소득원이 상실되었고 대처 방안도 부재하여 경제적 신(新)취약집단이 될 수 있음.

#### □ 생활 지원

- 자가격리 기간 중 이동과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자가격리자는 식사 해결, 외출 등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생필품 지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9%가 식료품을, 81.0%가 체온계 등 위생키트를, 34.6%가 기타 생활용품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지원받은 식료품에 대한 만족도는 3.11점, 도움 정도는 3.37점이었고, 위생키트의 만족도는 3.31점, 도움 정도는 3.46점으로 식료품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둘째, 전체 응답자 중 자가격리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식료품을 조리해서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51.2%,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서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41.5%, 지자체에서 지원한 식재료를 조리해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36.3%, 식재료를 온라인 등으로 배달 주문해서 조리해 식사했다는 응답률이 27.3%임.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지자체 지원 식재료 활용률(47.7%)이 높았고, 혼자 자가격리를 한 경우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여 식사한 비율(45.3%)이 높아 거주지역 및 동거인 여부가 식사 방법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함.
- 셋째, 쓰레기 배출이나 문서 발급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낮았음.

- 한편,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함.

#### □ 돌봄 지원

- 감염병 유행으로 이동과 접촉이 제한되었으나 접촉을 통한 돌봄이 필수적인 인구집단이 있어,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 중 대처 방안, 그리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현황과 대처 방안을 확인함.
- 첫째,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0~5세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 장애인, 신체 및 정신 질환자,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가구 내 해당하는 분류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2%임.
  -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거 가족이나 자가격리자 본인이 돌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0%로 가장 높음. 해당 가구원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 친지, 지인이 돌보았다는 경우가 전체의 43.1%로 나타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자가격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 정도로 낮은 수준이나,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포함된 비율로 본인 돌봄 수요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75%가 다른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18.8%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이동과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해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했다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음.

## 2. 개선 방안

### □ 표적화된 소득 지원

- 자가격리로 격리 기간 중 경제활동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손실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이용하는 임금근로자는 소득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월 생활비를 지원함.
  - 4인 가구 1,230,000원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26.7% 정도 임(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9. 7. 30.).
- 자가격리 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특히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실업자 집단이 자가격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받게 되는 소득 지원에 대한 충분성 인식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OECD(2020. 6., p. 8)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의 현금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국가 부채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하에서 예산 제약을 고려한 것임. 또한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보다 취약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임.
-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 대해 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표적화된 현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2020년 3, 4차 추가경정예에 의한 유급휴업 및 휴직 수당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2020. 7. 3.;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2020. 9. 22.).

## □ 맞춤형 생활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에 의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생활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부 해외입국자에게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하여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의료키트를 포함하는 생필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구성과 단가,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로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조준형, 2020. 9. 4.).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예산 소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 여력에 따른 생필품 양과 질 저하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실제 지원받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 등 실효성을 고려하면 지역,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배달이 어려운 읍·면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자체에 의해 구성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 반면, 조리된 식품이나 식재료, 생활용품 등의 배달이 용이한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전자이용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는 2020년 상반기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음. 이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이 신청한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전자 형태의 지역 화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강창희, 강지원, 김성아, 2020).
- 또한 자가격리자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제공해야 함.

##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장애인, 신체 및 정신 질환자, 고령자 등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수적인 인구집단이 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인 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이동을 제한하면서 대면에 의한 돌봄 제공에 제약이 발생함.
- 자가격리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14.2%가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가격리 기간 중 이들에 대한 주된 돌봄 방법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지내면서 동거 가족이나 자가격리자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 친지, 지인이 돌보는 등 스스로 돌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음.
  -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가격리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전체의 3.9%로 존재했음. 그중 75%는 다른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8.8%로 높게 나타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한나 외(2020)는 대상자 입장에서 직접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방문돌봄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정부부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는데,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엄격한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에 주목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0. 11. 27.).
  - 특히 돌봄 종사자 감염 시 대처 방안을 사전 설계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가구원 외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 내 실질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 등 제한된 접촉 범위를 유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휴직 등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시 엄격한 관리하에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제3절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 1. 주요 결과 요약

□ 본 연구의 자가격리 경험자 대상 조사에서는 ①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제공, ②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③ 주요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의 실천과 완화 또는 강화 의견, ④ 기타(코로나19 검사 등) 등의 사항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였음.

○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특정 조사 기간에 자가격리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관점’에서의 경험과 제도 개선 사항임에 주의해야 함.

□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제공

○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는 크게 ‘본인 인지’와 ‘외부로부터의 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72.0%임.

- 외부로부터의 통지는 보건소·지자체 통보(17.6%), 지인·회사의 연락(9.5%) 등의 순이며, 해외입국자의 경우 본인의 사전 인지가 99.3%에 이름.

○ 국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인지 후, 보건소의 공식적인 격리 통지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인지 시점부터 격리 통지 시점까지 기간 중에 대면활동이 있었다는 응답은 56.4%로 조사되어 방역 사각지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자가격리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의 인지율 자체는 매우 높았고(99.7%), 인지 경로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나 안내문 등 공식적 경로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남.

- 다만, 공식적 통보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듣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생활수칙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도 33명이었음.

#### □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 자가격리자에게 배정되는 ‘전담 공무원’ 지정에 대한 미인지 비율은 14.9%로 조사되었음.
- 자가격리 기간 중 전담 공무원 1명에 한정하여 소통한 경우는 64.4%, 2명 이상과 소통한 경우는 35.6%였음.
  - 복수 공무원과 소통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속적 관리를 위해 한 명과 연락·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56.2%가 동의하였음.
-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자가격리 중의 준수사항 설명(78.5%), 오래 기다리지 않은 소통(76.1%)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정해진 시간의 규칙적 소통’ 측면에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 수준을 보였음.
-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감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11.0%였는데, 신체적·정신적 압박 수준이 높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상호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불쾌한 경험 사례 중에는 ‘이해보다 지시·명령에 가까운 표현 사용’, ‘불친절한 언행이나 짜증화를 낸 감정적 표현 사용’, 자가격리 대상자 입장에서 보기에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불쾌한 경험을 당했을 때의 대처 가운데 참지 않고 ‘항의’를 비롯한 실제적 대처수단을 활용한 경우는 24.4%였음.

#### □ 주요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의 실천과 완화 또는 강화 의견

- 외부인 또는 비동거 가족과의 대면접촉 금지
  - 자가격리 기간 중 비동거 외부인과의 대면접촉 금지는 89.5%의 응답자들이 잘 준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미준수율(12.6%)이 국내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미준수율(5.6%)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전담 공무원과 사전 협의 없는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외출 경험은 19명에게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순수한 ‘이탈’은 6건이었음.

○ 능동감시(1일 2회 증상 입력)

- 신체 상태 등 1일 2회 증상 입력의 준수율은 92.2%였고, 증상 입력이 누락 되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누락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을 한 자가격리자는 3명이었음.

○ 쓰레기 배출

- 자가격리 기간 중 쓰레기 배출 방법 가운데 수칙을 준수한 경우, 즉 ‘집 안에 보관했다가 격리 해제 후 배출’한 경우는 84.9%로 나타났음.
- 다른 준수사항에 비해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주간 폐기물 보관에 따른 위생 문제와 후속 처리의 번거로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23.4%였음.
- 제기된 불편함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은 ‘위치확인시스템(GPS) 오류’, ‘휴대전화 운영 체제(OS)와의 시스템 충돌’ 등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문제였음. 휴대전화가 없거나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 등 인프라 문제도 13명이 제기하였음.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에 대한 완화 또는 강화 의견

- 14일의 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완화(36.9%) 의견이 강화(24.1%) 의견보다 높았고, 고연령 및 해외입국자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였음.
- 비동거 가족이나 지인 방문 금지에 대한 강화 의견은 53.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 설치에 대한 강화 의견은 70.0%로 조사되었음.

- 1일 2회 이상의 능동감시는 현재 정도의 수준 유지(44.4%) 의견이 높았으나, 위치정보를 이용한 격리 장소 이탈 방지와 동거 가족과의 독립생활 등 노력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각각 63.9%, 50.3%가 동의함.
- 특히 격리 장소 이탈 방지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 의견이 51.2%로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강력한 규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기타 자가격리제도 구성요인의 경험과 의견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는 96.1%인 394명이었음.

-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자가격리 시작 직전 검사가 67.8%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해제 직전 검사는 47.7%, 자가격리 시작 직후 검사는 33.2%였음 (중복응답 허용).
- 코로나19 검사 경험자 가운데 두 차례 이상 검사를 받은 경우는 49.2%였음.

○ 조사 응답자 중 단독 자가격리자 비율은 65.1%였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된 비율은 34.9%였음.

- 본 조사 결과에 국한되기는 하나,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 동거 가족과의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에 대해서는 72.0%가 충실하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64.4% 수준이었음.

## 2. 개선 방안

#### □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리 개선의 방향성

○ 자가격리제도는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적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상의 ‘강제처분’에 해당<sup>14)</sup>

- 따라서 자가격리제도의 운영 개선은 ① 신속한 위기 상황 종식에 기여, ②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③ 자유 제한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례적 타당성, ④ 자세하고 명료한 운영을 통한 순응도 제고의 방향성 필요

○ 자가격리자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에 연동되며, 확진자 규모는 전담 공무원 업무량과 신체적·정신적 소진과 직결되므로 '자가격리제도 운영 역량을 보존' 하기 위하여 유행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여

#### □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 감염병 유행을 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②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로 구분하여 자가격리제도의 목표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기준은 중간 단계 이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거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수가 지역사회 확진자 수보다 많은 상황으로 설정
- 지자체 전담 부서의 1:1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 방역당국과 보건부서(보건소 등)는 제도 운영 역량 축적과 내실화에 초점
  - 안전보호앱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오작동을 방지하고, '단순 증상신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탈피하여 자가격리 시 생활 영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탑재
  - 자가격리제도 준수사항 및 생활수칙 사례 등을 구체화·풍부화하여 대국민 홍보함으로써 자가격리의 수용도 제고
- 자가격리자 폭증에 대비한 지역 내 응급의료시스템 정비(자가격리 중 이송체계, 자가격리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사전 확보 등)

14)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자가격리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임.

##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설정
  - 지역 여건에 따라 전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대응 비율의 1:다(多) 전환
  - 유행 차단을 위해 접촉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 노출과 자가격리 통보 사이의 방역 사각지대 발생 개연성 최소화
- 자가격리 채널과 담당 조직 확장
  - 지역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119) 등 행정라인 전체를 접촉자 신고 채널로 가동하고, 신고된 내용이 보건소와 재난 담당 부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핫라인 확보
  - 자가격리자 대응 지역 내 응급의료시스템 가동

〈표 5-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유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산발적 감염</li> <li>• 해외유입 확진 지역사회 확산</li> <li>• 중간 이하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유행</li> <li>•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li> </ul>
자가격리제도 운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역량 축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신속 발굴</li> <li>• 자가격리 채널 확장</li> </ul>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대상자와 전담 공무원 1:1 대응</li> <li>•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안정화</li> <li>•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li> <li>•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 세분화 및 안전보호 앱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소방, 민간행정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역량 활용</li> <li>• 자가격리 응급환자 의뢰이송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가동</li> </ul>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 감염병 노출 인지 시점과 자가격리 개시 시점 사이의 시차 최소화

- 해외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대해 대부분 인지되어 있으나, 국내접촉자는 인지 시점과 자가격리 개시 시점 사이의 시차 불가피
  - 해외입국자도 영사관 또는 국가별 한인회 등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이외에 자가격리 중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정보 제공

○ 국내접촉자의 경우 감염병 노출과 자가격리 사이의 시차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 정보 수집·교류 체계 구축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홍보·안내 강화

-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자와 동거 가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안내를 확대함으로써 자가격리에 대한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자가격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등 외부인 방문·대면접촉 금지, 동거 가족과의 독립생활 영위 등은 국민적 이해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
- 기존에 제공되는 생활수칙 이외의 정보와 grey zone에 속하는 사례(김수진, 2020. 10. 13.) 등은 신뢰도 높은 정보원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경우 자가격리제도 운영 취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안전재난문자에 확진자와 동선 중복 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음과 대면 활동 자제 내용 포함하여 발송

○ 확진자 접촉자 신고 채널 확장

- 특히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각한 경우, 보건소 업무량이 폭증하여 접촉 의심자 개인의 신고·문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노정
- 지역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119) 등 행정라인 전체를 접촉자 신고 채널로 가동하고, 신고된 내용은 보건소와 재난 담당 부서에 실시간으로 전달
- 지역 내 네트워크(회사, 자영업자 단체, 주민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로 포착되는 확진자 접촉자 정보교류망 구축
- 고령자 대상 사업 조직을 통한 정보 제공·교류 방안 강구(본 조사에서 60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스로 인지' 비율이 전무)

□ 전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협업

○ 전담 공무원의 소통 역량은 강화하되, 업무상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지역사회 행정조직 활용 등으로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대응

- 본 조사에서 자가격리자와 공무원 간 소통은 긍정적이었으나, 지적된 일부 문제점(불규칙적 소통,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은 1:1 대응이 원칙이나, 자가격리자가 증가할 경우 현실적으로 공무원 1명의 복수 자가격리자 담당은 불가피
  -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 집단은 가급적 1:1 대응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가격리자는 1:다(多) 체계로 전환
-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상황 파악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소통의 규칙성을 최대한 준수
- 전담 공무원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지역사회 행정조직(통·이·반장) 및 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업무 분담 방안 마련

#### □ 자가격리자 일상 지원 및 ‘집단’ 자가격리제도 운영 검토

- 본 조사에서는 자가격리 시 준수할 사항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지도와 협조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가격리 기간(14일)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게 존재
- 자가격리 기간의 적정성은 의학적 근거에 따르므로 물리적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단언할 수 없음. 다만, 자가격리 기간 단축의 요구가 해외입국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에 착안하여 제도 보완 가능
  - 상대적으로 단독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돌봄 필요), 국내 네트워크가 부족한 특성이 있는 집단 등에 대한 고려
-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강화
  - 본 조사에서 동거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당수 확인
  - 자가격리 공간 확보, 일상생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미국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사회서비스 요구도를 평가해, 격리에 필

요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지원

- 단기적으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단독 자가격리 생활 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집단’ 자가격리제도의 세부 내용을 검토
- 고령자 및 해외입국자 단독 자가격리 생활 지원
  - 지역사회 마음건강·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단독 식사 준비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배달 식사 서비스가 가능한 요식업소와 연계, 식사 서비스 제공
    - 희망자 및 희망업소에 한정
    - 배달 및 폐기물 수거 수칙 준수: 담당 공무원 사전 연락, 비대면·배달, 일회용품 활용, 이중 밀봉 후 배출·수거(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 비용은 자가격리자 대상의 생활지원비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처리
- ‘집단’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안
  - 자가격리의 기본 단위는 ‘단독’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집단 단위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존
    - 본 연구 조사 대상자 중 34.9%가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수행해, 가족 동반 자가격리의 경우 수칙 준수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
  - 단독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 아동 등), 밀집 환경(예: 고시원, 근로자 집단 거주지 등) 거주자, 해외입국 후 국내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 소규모 집단 단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그 기준과 생활수칙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 희망자에 한해 임시생활시설 등 ‘시설격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검토
  - 영국의 자가격리제도 가운데 지역사회 지원 기제인 ‘support bubble’을 국내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검토

Support Bubble(영국 정부 홈페이지, 2020)<sup>15)</sup>

-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가구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
- support bubble 내 구성원 간에는 거리두기 완화 적용
- support bubble 구성 요건: 단독 거주자,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이 없는 성인, 1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가구, 5세 이하 장애 아동이 포함된 가구, 성인 없이 16~17세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가구, 18세 미만자와 거주하는 유일한 성인
- 2개 이상 support bubble 중복 구성은 원칙적으로 불가
- support bubble에서 확진자 발생 시 모든 구성원은 10일간 단독 자가격리

#### □ 장기적으로 감염병 특성에 따른 자가격리제도 세분화

- 현재 자가격리제도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감염질환에 특수화되어 설계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상 자가격리는 ‘제1급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적용<sup>16)</sup>
  - 동법 제2조(정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과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는 다양한 전파경로와 증상을 가지는 37종의 감염병이 규정
-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 질환을 정비하고, 감염병 특성에 따른 격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향후 다양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 필요

15) ‘support bubble’은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upport-bubble-with-another-household>의 내용을 정리하였음(2020. 12. 29. 인출).

16)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생략



## 〈국내문헌〉

- 강창희, 강지원, 김성아.(2020). 지역 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서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 김형균.(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11, 5-1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20). 참고자료: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 이한나, 김유휘, 김진희, 오다은, 이정은, 이주연, 정소윤, 최요석.(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8호.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2판 부록.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3판.
- 행정안전부.(2020. 12. 31.).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국외문헌〉

- 후생노동성.(2020).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증자 등에 관한 자택 요양 실시 유의사항 (제2판).
- Deep Knowledge Group.(2020). Big Data Analysis of 200 Countries and Regions COVID-19 Safety and Ranking and Risk Assessment.
- OECD.(2020. 6.). OECD Economic Outlook(Preliminary version). Paris, OECD Publishing.

## 〈웹(Web)자원·신문기사·보도자료〉

- 강승훈.(2020. 8. 11.). “음식 입에 안 맞아” “쓰레기 버려줘”...민폐 격리자에 공무원 ‘녹초’.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0519002?OutUrl=naver> 에서 2020. 12. 28. 인출.
- 구글뉴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국대륙 페이지.(2020).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fbp0&gl=KR&ceid=KR%3Ako>에서 2020. 10. 26. 인출.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2020. 7. 3.).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kdi.re.kr/policy/ep\\_view.jsp?idx=202563](https://www.kdi.re.kr/policy/ep_view.jsp?idx=202563)에서 인출.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2020. 9. 22.).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_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5551](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_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5551)에서 인출.
- 김수진.(2020. 10. 13.). 자가격리 유튜브의 ‘현관 생일파티’는 규정 위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22600502>에서 2020. 12. 28. 인출.
- 김연하.(2020. 8. 20.). 처참하게 끝난 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사망자 150년만 최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AUXVJ>에서 2020. 10. 10. 인출.
- 김잔디.(2020. 4. 10.). 자가격리자 ‘가족감염’ 현실화…해외유입 2차전파 60%가 가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85500017>에서 2020. 12. 28. 인출.
- 도쿄도 미나미타마 홈페이지.(2020a).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smph/minamitama/gyoumu/covid19/nokosesshoku.html>에서 2020. 10. 12. 인출.
- 도쿄도 미나미타마 홈페이지.(2020b).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minamitama/gyoumu/covid19/nokosesshoku.files/onegai.pdf>에서 2020. 10. 12. 인출.
- 독일 Solingen 지역 홈페이지.(2020).  
<https://www.solingen.de/de/inhalt/coronavirus-statistik/>에서 2020. 10. 10. 인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9. 7. 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365](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365)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020. 11. 27.).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367](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367)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 보건복지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

- eq=384에서 2020. 12. 24. 인출.
- 손진석, 정시행.(2020. 10. 27.). 하루 확진 유럽 20만, 미국 8만...백악관은 “코로나 통제 않겠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0/10/27/UHJ3BFNE2JA2TFF4NYGVSWWTJ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0/10/27/UHJ3BFNE2JA2TFF4NYGVSWWTJ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에서 2020. 10. 28. 인출.
- 신동훈.(2020. 9. 2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이 응원가를 바칩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09/22/YQBCCYB2GNEAHGEWVJHAHRNXK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09/22/YQBCCYB2GNEAHGEWVJHAHRNXK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에서 2020. 12. 28. 인출.
- 안두원.(2020. 4. 20.). 집단면역 시도 스웨덴 “급증세 꺾였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410040/>에서 2020. 10. 10. 인출.
- 안승섭.(2020. 1. 28.). 신종코로나-사스 ‘닭은꼴’...중국 ‘초기대응 부실’이 재앙 키웠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01800074>에서 2020. 10. 26. 인출.
- 영국 정부 홈페이지.(2020).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upport-bubble-with-another-household>에서 2020. 12. 29. 인출.
- 오세진.(2020. 8. 24.). 입국자 격리, 상주는 면제고 말기암 환자는 지키라니.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4500180&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4500180&wlog_tag3=naver)에서 2020. 12. 28. 인출.
- 우상규.(2020. 4. 20.). 지친 시민 달래기...평수·BTS 이어 지자체도 ‘집콕챌린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20524518?OutUrl=naver>에서 2020. 12. 28. 인출.
- 이민정.(2020. 9. 17.). 스웨덴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집단면역 반전, 하루 확진 최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73961>에서 2020. 10. 12. 인출.
- 이승엽, 김영훈, 김현종.(2020. 9. 6.). ‘창살 없는 감옥’ 코로나 자가격리...“혹시 내가 옮겼나?” 스트레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4000000865?did=NA>에서 2020. 12. 28. 인출.

- 이준기.(2020. 3. 12.). 확진자 12만명 넘자…WHO “코로나19, 팬데믹” 늑장선언(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702664&mediaCodeNo=257&OutLnkChk=Y>에서 2020. 10. 10. 인출.
- 이태윤.(2020. 7. 9.). 자가격리 만성신부전 환자 투석 병원 못 찾아 잇따라 사망.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925> 에서 2020. 12. 28. 인출.
- 이후연.(2020. 4. 10.). “병원 취급받는 것 같다” 자가격리자 환병, 일반인의 두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1381>에서 2020. 12. 28. 인출.
- 임은진.(2020. 3. 12.).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통제될 수 있다”(종합2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2153088?input=1195m>에서 2020. 10. 10. 인출.
- 임찬영.(2020. 3. 2.). “나 때문에 확산될까…” 불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118131767105>에서 2020. 12. 28. 인출.
- 전훈익.(2020. 3. 31.). 호사카 유지 “일본 코로나 통계 조작, 아베 ‘무지’로 증명”.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10849032021>에서 2020. 10. 12. 인출.
- 전희윤.(2020. 3. 12.). WHO,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통제될 수 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642IA9Y>에서 2020. 10. 10. 인출.
- 조계완.(2020. 3. 12.). WHO,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통제될 수 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243.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243.html)에서 2020. 10. 10. 인출.
- 조준형.(2020. 9. 4.). [팩트체크] 코로나 격리자용 식료품 누군 주고 누군 안준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82900502?input=1195m>에서 2020. 12. 24. 인출.
- 중앙사고수습본부 홈페이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에서 2020. 12. 28. 인출.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2020. 2. 14.).  
[http://www.moj.gov.cn/subject/content/2020-02/14/1449\\_3241666.html](http://www.moj.gov.cn/subject/content/2020-02/14/1449_3241666.html)에서 2020. 10. 8. 인출.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 산하 질병예방관리국.(2020. 4. 7.).  
<http://www.nhc.gov.cn/jkj/s5888/202004/32701ef2e5c940cb8e0e416dbabb4>

- a4d.shtml에서 2020. 10. 8. 인출.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 산하 질병예방관리국.(2020. 9. 15.).  
<http://www.nhc.gov.cn/jkj/s3577/202009/318683cbfaee4191aee29cd774b19d8d.shtml>에서 2020. 10. 8. 인출.
- 차영환.(2020. 12. 7.). 인천 중구, ‘코로나우울증’ 대상자에 인문융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3281>에서  
 2020. 12. 28. 인출.
- 통계청 홈페이지.(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_OEC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_OECD)  
 에서 2020. 10. 12. 인출.
- 홍창기.(2020. 10. 28.). 미국 코로나 환자 하루 7만명씩 늘다... 대유행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0280703564751>에서 2020. 10. 28.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0a).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81354.pdf>에서 2020. 10. 10.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0b).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SLANG=ja&TLANG=ko&XMODE=0&XPARAM=q,&XCHARSET=UTF-8&XPORG=,&XJSID=0](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SLANG=ja&TLANG=ko&XMODE=0&XPARAM=q,&XCHARSET=UTF-8&XPORG=,&XJSID=0)에서 2020. 10. 12.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0c).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covid19\\_qa\\_kanrenkigyuu\\_00001.html#Q3-1](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covid19_qa_kanrenkigyuu_00001.html#Q3-1)에서 2020. 10. 12.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0d). <https://www.mhlw.go.jp/content/000691774.pdf>에서  
 2020. 10. 12. 인출.
- bussgeldkatalog 홈페이지.(2020a). <https://www.bussgeldkatalog.org/corona-berlin>  
 에서 2020. 10. 11. 인출.
- bussgeldkatalog 홈페이지.(2020b). <https://www.bussgeldkatalog.org/quarantaene>  
 에서 2020. 10. 11. 인출.
- bussgeldkatalog 홈페이지.(2020c). <https://www.bussgeldkatalog.org/corona-berlin>  
 에서 2020. 10. 11. 인출.
- CDC 홈페이지.(2020a).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isolation.html>

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b).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quarantine.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care-for-someone.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d).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treatments-for-severe-illness.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stress-coping/index.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parents-caregivers.html>에서 2020. 10. 8. 인출.

CDC 홈페이지.(2020h).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php/self-quarantine\\_form.pdf](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php/self-quarantine_form.pdf)에서 2020. 10. 8. 인출.

Coronaboard 홈페이지.(2020). <https://coronaboard.kr/>에서 2020. 12. 31. 인출.

infektionsschutz 홈페이지.(2020a).

<https://www.infektionsschutz.de/coronavirus/wie-verhalte-ich-mich/bei-verdacht-auf-infektion.html>에서 2020. 10. 10. 인출.

infektionsschutz 홈페이지.(2020b).

<https://www.infektionsschutz.de/hygienetipps.html>에서 2020. 10. 10. 인출.

infektionsschutz 홈페이지.(2020c).

<https://www.infektionsschutz.de/coronavirus/fragen-und-antworten/quarantaene-und-isolierung.html#faq4255>에서 2020. 10. 10. 인출.

- Johns Hopkins CSSE 홈페이지.(2020).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에서 2020. 10. 10. 인출.
- OECD홈페이지.(2020a).  
<http://data.oecd.org/healthres/doctors.htm#indicator-chart>에서 2020. 10. 10. 인출.
- OECD홈페이지.(2020b).  
<http://data.oecd.org/healthres/nurses.htm#indicator-chart>에서 2020. 10. 10. 인출.
- OECD 홈페이지.(2020c). <http://data.oecd.org/healthqt/hospital-beds.htm>에서 2020. 10. 12. 인출.
- Sepkowitz K.(2020. 3. 25.). Why is Covid-19 death rate so low in Germany?, CNN,  
<https://edition.cnn.com/2020/03/24/opinions/germany-low-death-rate-for-coronavirus-sepkowitz/index.html>에서 2020. 10. 10. 인출.
- Tedesjö E.(2020. 4. 3.). Stefan Löfven: Vi kommer få räkna de döda i tusental, DAGENS NYHETER.  
<https://www.dn.se/nyheter/sverige/stefan-lofven-tusentals-kommer-att-do/>에서 2020. 10. 10. 인출.
- WHO.(2020. 8. 19.). Considerations for quarantine of contacts of COVID-19 cases: Interim guidance.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considerations-for-quarantine-of-individuals-in-the-context-of-containment-for-coronavirus-disease-\(covid-19\)](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considerations-for-quarantine-of-individuals-in-the-context-of-containment-for-coronavirus-disease-(covid-19))에서 2020. 10. 10. 인출.
- WHO 홈페이지.(2020a). <https://www.who.int/about/who-we-are/our-values>에서 2020. 10. 10. 인출.
- WHO 홈페이지.(2020b).  
[https://www.who.int/influenza/resources/documents/pandemic\\_phase\\_descriptions\\_and\\_actions.pdf?ua=1](https://www.who.int/influenza/resources/documents/pandemic_phase_descriptions_and_actions.pdf?ua=1)에서 2020. 10. 10. 인출.
- WHO 홈페이지.(2020c).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gclid=EAIaIQobChMI5fa5qe6p7AIVmLaWCh3VVAgBEAAYASAAEGKyxvD\\_BwE](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gclid=EAIaIQobChMI5fa5qe6p7AIVmLaWCh3VVAgBEAAYASAAEGKyxvD_BwE)에서 2020. 10. 10. 인출.

WHO 홈페이지.(2020d). <http://covid19.who.int>에서 2020. 10. 10. 인출.

####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445#000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887#0000>  
에서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법률 제17472호. 2020. 6. 1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01#0000>  
에서 인출.



## [부록 1] 조사표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ID

-

### 자가격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자가격리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자가  
격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응답하시는 데 약 15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원치 않으면 참여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 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 자가격리제도 운영관리 측면 실태 파악

### 정보 제공 및 소통

1.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 ☐ ① 스스로 인지                      ☐ ② 지인 또는 회사로부터 연락 받고 인지  
☐ ③ 보건소나 지자체 통보를 받고 인지   ☐ ④ 해외입국자로서, 미리 인지  
☐ ⑤ 기타( )

1-1. (1번 문항 ①, ② 응답자)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후 며칠 만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 ① \_\_\_\_\_ 일   ☐ ② 기억나지 않음

1-2. (1번 문항 ①, ② 응답자)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후 통보를 받기 전까지 대면활동(가족·지인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까?

-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③ 기억나지 않음

2. 자가격리 중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보건소 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 ② 자가격리시 받은 안내문을 읽어보고  
☐ ③ 지인으로부터 듣거나 인터넷 검색 등 본인의 노력으로 알게 됨  
☐ ④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에 대해 모름  
☐ ⑤ 기타( )

3. 자가격리 기간 중에 소통한 공무원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몇 명의 공무원과 소통하였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하고 귀하를 전담했던 공무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 ① 여러 명      ☐ ② 한 명

3-1-1. (3-1번 문항 ① 응답자) 여러 명의 공무원이 연락소통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한 명과 연락소통하는 것이 바람직  
☐ ② 여러 담당자가 업무별로 연락소통하는 것이 바람직  
☐ 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 )

3-2.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무원들과의 다음과 같은 소통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

구 분	부정적					긍정적				
	① .....					⑤				
3-2-1.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2.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3. 자가격리 기간 중 준수할 사항 등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4. 나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 노력했거나,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5. 전반적으로 전담 공무원과의 소통에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쾌감 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3-3-1. (3-3번 문항 ① 응답자) 불쾌감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불친절한 언행이나 짜증 또는 화를 내는 등 감정적 표현 사용  
☐ ② 자가 격리자에 대한 비웃음, 조롱 등에 해당하는 표현 사용  
☐ ③ 성희롱 또는 성폭력적인 표현 사용  
☐ ④ 이해를 구하기보다 지시, 명령에 가까운 표현 사용  
☐ ⑤ 기타( )

3-3-2. (3-3번 문항 ① 응답자) 불쾌감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참음  
☐ ② 공무원 본인에게 항의  
☐ ③ 시청군청구청, 보건소 등 상급 기관에 항의(민원 포함)  
☐ ④ 지역 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상에 사례 공개  
☐ ⑤ 기타( )

3-4.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전담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 ① 알고 있었음      ☐ ② 알지 못했음

4. 자가격리 직전이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 ☐ ① 검사를 받았음      ☐ ② 검사를 받지 않았음

4-1. (4번 문항 ① 응답자) 언제 검사를 받으셨는지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자가격리 시작 직전      ☐ ② 자가격리를 시작한 직후  
☐ ③ 자가격리 기간 중간 즈음에      ☐ ④ 자가격리 해제 직전

**자가격리 준수**

5. 자가격리 제도 중에 준수해야 할 다음 내용에 대해 완화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1점에 가까울수록 '완화할 필요가 높다'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강화할 필요가 높다'에 해당)

구 분	완화				강화
	①	②	③	④	⑤
5-1. 자가격리 기간(현재: 14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 금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발열 등 증상에 대한 1일 2회 입력신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4.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격리장소 이탈 방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5.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독립 식사, 화장실 등의 단독 사용,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6.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자가격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등은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6-1. (6번 문항 ①응답자) 앱 이용에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입력이 잘 안되거나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등 작동이 불안정  
☐ ②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충분한 안내 부족  
☐ ③ 해외입국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  
☐ ④ 휴대폰이 원래 없거나,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앱 미작동  
☐ ⑤ 기타(\_\_\_\_\_)

7.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7-1. 외부인(예: 택배 기사) 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 '대면'한 경험

-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7-2. 자가격리 중 외부에 외출한 경험

-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7-2-1. (7-2번 문항 ① 응답자) 어떤 일 때문에 외출하셨는지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서비스 이용 | <input type="checkbox"/> ② 시험 응시             |
| <input type="checkbox"/> ③ 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 <input type="checkbox"/> ④ 생필품 구입            |
| <input type="checkbox"/> ⑤ 쓰레기 배출              | <input type="checkbox"/> ⑥ 실내에만 있기 응답하여 기분전환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_____)           |  |

7-2-2. (7-2번 문항 ① 응답자) 외출하셨을 때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함께 외출하셨습니까?

- ☐ ① 모든 외출 시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동반 외출  
☐ ②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잠깐 외출한 적 있음

7-3. 1일 2회 증상 입력

- ☐ ① 입력을 누른 경험이 있음                      ☐ ② 빠짐없이 1일 2회 입력함

7-3-1. (7-3번 문항 ① 응답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력이 누락되었을 때 전담 공무원이 알려주었습니까?

- ☐ ① 입력 누락을 알려줬음                      ☐ ② 입력 누락을 알려지지 않음

7-4. 자가격리 기간 중의 쓰레기 배출(모두 응답)

- ☐ ① 격리 중에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배출  
☐ ② 격리 중에 집 밖에 둔 것을 가족이나 지인이 가져가서 배출  
☐ ③ 격리 중에 본인이 잠시 외출해서 분리수가배출  
☐ ④ 집 안에 보관했다가 격리가 해제된 후 배출  
☐ ⑤ 기타(\_\_\_\_\_)

8. 자가격리는 혼자서 하셨습니까? 가족 등 함께 살던 분들과 하셨습니까?

☐ 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

☐ ② 혼자서 자가격리

8-1. (8번문항 ①응답자)가족 등 함께 사는 분들의 생활수칙에 대해서는 충실히 안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실히 안내되었다고 생각하실수록 5점에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긍정적
①	.....	.....	.....	.....	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2. (8번문항 ①응답자)가족 등 함께 사는 분들과의 생활 분리(독립공간 사용, 독립 식사, 화장실 등 독립 사용, 식기 등 생활용품 구분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 등)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수록 5점에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긍정적
①	.....	.....	.....	.....	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 파악

### 코로나 19 증상 및 기저질환 관리

1.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열, 기침, 설사 등)이 나타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1. (1번 문항 ① 응답자) 담당 공무원이 '즉시'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알려주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질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1. (2번 문항 ①에 응답자) 자가격리로 인해, 그 질환의 정기적인(또는 예약이 되어있던) 병원방문을 하지 못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2. (2번 문항 ①에 응답자) 자가격리 기간 중 복용하시던 약을 추가로 처방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추가 처방 필요 없음

↳ 2-3. (2번 문항 ①에 응답자) 자가격리로 인해 그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 자가격리 중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건강문제로 응급 상황(기저질환 관련 증상, 골절 등 스스로 판단하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자가격리 중 응급상황을 2회 이상 경험하셨다면, 가장 심각했던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3-1. (3번 문항 ①에 응답자) 응급 상황이 발생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 ② 평일 새벽, 야간, 또는 주말

↳ 3-2. (3번 문항 ①에 응답자) 응급 상황 발생 후, 담당 공무원이나 보건소와 '즉시' 연락이 가능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3. (3번 문항 ①에 응답자) 응급 상황 발생 후, 치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b>주변의 인식, 편견</b>
<p>4. 자가격리 이후 주변(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p>
<b>정신건강 관리</b>
<p>5.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p>
<p>6. 자가격리가 종료된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p>
<p>7. 자가격리 중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p> <p>↳ 7-1. (7번 문항 ①응답자)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언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모두선택)</p> <p><input type="checkbox"/> ① 자가격리 기간 중    <input type="checkbox"/> ② 자가격리 종료 후 일정기간</p>
<b>생활습관 관리</b>
<p>8.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신 편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p>
<p>9.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줄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p>

### 3 복지 지원 관련 욕구 파악

#### 소득 손실 지원

1. 다음의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 ① 회사 유급휴가
 ☐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생활지원비
 ☐ ③ 기타 ( )
 ☐ ④ 받지 않았다

↳ 1-1. (1번문항 ①~③ 응답자) 자가격리에 대한 소득지원액이 충분하셨습니까?

- ☐ ① 매우 부족했다
 ☐ ② 부족했다
 ☐ ③ 충분했다
 ☐ ④ 매우 충분했다

↳ 1-2. (고용주나 자영자 등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직접 일을 못하시면서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 ☐ ① 직원이 근무했다
 ☐ ② 가족·친지·지인이 근무했다
 ☐ ③ 휴·폐업했다

#### 생활지원

2.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음의 용품을 지원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식료품
 ☐ ② 체온계 등 위생키트
 ☐ ③ 기타 생활용품
 ☐ ④ 아무 것도 받지 않았음

2-1. (2번문항 ①②③ 응답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용품의 양과 질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① ..... ⑤					
2-1-1. 식료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2. 위생키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3. 기타 생활용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2번문항 ①②③ 응답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용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 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					⑤
2-2-1. 식료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2. 위생키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3. 기타 생활용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자가격리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식료품을 조리해서  
☐ ② 식재료를 주문해 직접 조리해서  
☐ ③ 조리된 음식을 배달 주문해서  
☐ ④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식료품을 이용해서  
☐ ⑤ 기타 ( )

4.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식자재나 생필품 구입, 쓰레기 처리 등 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 ① 주변 지인      ☐ ② 전화 등 온라인 배달      ☐ ③ 지자체 담당공무원  
☐ ④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음      ☐ ⑤ 기타 ( )

#### 돌봄 지원

5. 가구에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5-1. (5번 문항 ①예 응답자)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만0-5세 미취학 아동      ☐ ② 만6-17세 초·중·고등학생 자녀  
☐ ③ 장애인      ☐ ④ 돌봄이 필요한 신체·정신질환자  
☐ ⑤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 ⑥ 기타( )

5-1-1. (5-1번 문항 ①~⑥ 응답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주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 ☐ ① 해당 가구원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거 가족이나 내가 돌봄  
☐ ② 해당 가구원과 멀어져 지내면서 가족·친지·지인이 돌봄  
☐ ③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예: 긴급돌봄,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 등)  
☐ ④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 ⑤ 기타 ( )

6. 귀하께서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

6-1. (6번문항 ① 응답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상생활 돌봄을 주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① 다른 동거 가족의 도움

☐ ② 정부 지원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예: 긴급돌봄,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 ③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 ④ 기타 ( )

☐ ⑤ 도움을 받지 못 함

#### 4 제도 개선 및 지원 요구 파악

1. 앞으로 코로나19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제공할 필요성이 높거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 분	낮음					높음				
	① .....					⑤				
1-1.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상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실내 활동(실내 운동)에 대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자가 격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방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휴대폰, 와이파이 등 실시간 활용 가능한 장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자가 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자가 격리 중 생활수칙에 대한 상세하고 내실있는 안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자가 격리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확대와 안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생활용품, 생활지원비 등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0. 성인과 아동 등 필요에 따른 지원용품 다양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1. 자가 격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2. 기타 의견 ( )										

## 5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여성 <input type="checkbox"/> ② 남성
2.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월생 )
3. 현재 거주하는 시·도 명을 말씀해주시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특별시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특별자치시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도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⑪ 충청북도 <input type="checkbox"/> ⑫ 충청남도 <input type="checkbox"/> ⑬ 전라북도 <input type="checkbox"/> ⑭ 전라남도 <input type="checkbox"/> ⑮ 경상북도 <input type="checkbox"/> ⑯ 경상남도 <input type="checkbox"/> ⑰ 제주특별자치도
↳ 3-1. (모든 응답자) 거주하는 지역은 어떤 행정구역에 해당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읍·면 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동 지역
4. 귀하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임금근로자-상용직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② 임금근로자-임시직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③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④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⑤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⑥ 실업자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실업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⑦ 비경제활동인구 (학생, 주부, 의무복무중인 군인 등)
5. 귀하의 가구 총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00~1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200~2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300~3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400~4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⑦ 500~5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⑦ 600~699만원 <input type="checkbox"/> ⑧ 700만원 이상

<p>6. 귀하는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하셨습니까?(모두 선택)</p> <p><input type="checkbox"/> ① 자택    <input type="checkbox"/> ② 친척, 지인의 집    <input type="checkbox"/> ③ 개인적으로 대여한 숙박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지자체에서 제공한 시설</p> <p>※ 2곳 이상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경우,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공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p> <p>↳ 6-1. (모든 응답자) 주거지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거실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거실 있음</p> <p>↳ 6-2. (모든 응답자) 방은 총 몇 개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방 1개    <input type="checkbox"/> ② 방 2개    <input type="checkbox"/> ③ 방 3개 이상</p>
<p>7. 귀하는 총 며칠간 자가격리를 하셨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14일 미만(총 _____일)    <input type="checkbox"/> ② 14일    <input type="checkbox"/> ③ 14일 초과(총 _____일)</p>
<p>8.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셨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해외입국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밀접접촉</p>
<p>9.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p>